

3/4

2012년 3/4분기 디자인산업 동향브리프

2012년 3/4분기 동향과 2012년 4/4분기 전망

2012. 10 지식경제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2년 3/4분기 디자인산업 동향브리프 • 2012년 3/4분기 동향과 2012년 4/4분기 전망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N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본 보고서는 분기별 전문디자인업체의 체감경기를 조사하여 디자인산업 분야별 · 지역별 · 경영활동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동향 및 정책동향을 소개함으로써 디자인 업계의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자료는 www.designdb.com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 3/4분기 디자인산업 동향브리프

Vol. 9

발행인 이태용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총괄책임 최원도

실무책임 윤병문

발간기획 오승희

발간진행 서설옥

발행일 2012년 10월 31일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디자인전략연구실 정책개발팀

031-780-2169, gexample@kidp.or.kr

요약	03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09
1. 2012년 3/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09
2. 2012년 4/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14
3. 국내 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관리현황	19
4. 전문디자인업 생산 지수	23
II. 디자인산업 업계동향	25
1. 국내 업계동향	25
2. 해외 업계동향	34
III. 디자인산업 정책동향	43
1. 국내 정책동향	43
2. 해외 정책동향	47
부록	52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52
II. 2012년 3/4분기 BSI 조사표(설문지)	54
III.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57
IV. 산업일반 통계자료	62

요약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1. 2012년 3/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전문디자인업의 3/4분기 경기지수(D-BSI)는 61.2p로 전분기 62.5p 보다 1.3p 하락하여 전년 동분기(68.4p)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

상승 : 제품디자인업 (66.5p→73.4p △6.9p)
하락 : 시각디자인업 (58.0p→55.7p ▽2.3p), 인테리어디자인업 (68.6p→58.8p ▽9.8p),
기타전문디자인업(57.4p→55.9p ▽1.5p)

■ 지역별

상승 : 서울 (62.6p→62.8p △0.2p), 경기/인천 (47.9p→55.2p △7.3p)
하락 : 대전/충남/충북 (54.3p→52.4p ▽1.9p), 대구/경북 (61.2p→55.0p ▽6.2p),
광주/전남/전북 (83.1p→52.8p ▽30.3p), 부산/울산/경남 (73.3p→61.5p ▽11.8p),
강원/제주 (95.6p→87.4p ▽8.2p)

■ 경영부문별

상승 : 매출 (64.1p→67.1p △3.0p), 재산성 (56.1p→61.1p △5.0p), 자금사정 (58.7p→59.5p △0.8p)
하락 : 인력사정 (86.2p→81.6p ▽4.6p)

※ 3분기 경기 악화 이유

'불확실한 경제상황'(52.7%), '내수 부진'(51.5%)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경쟁 심화'(20.5%),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18.2%), '자금 부족'(15.4%), '인건비 상승'(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3분기 경기 호전 이유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44.7%)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내수 활황'(39.0%)이었음. 이어 '자금난 해소'(10.6%), '인력난 해소'(5.1%), '정부 경기부양책'(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2. 2012년 4/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전문디자인업의 4/4분기 경기전망지수(D-BSI)는 79.1p로 전분기 79.7p 보다 0.6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96.7p 대비 17.6p 하락함

■ 업종별

상승 : 시각디자인업 (70.0p→78.7p △8.7p), 기타전문디자인업 (55.2p→74.5p △19.3p)
하락 : 제품디자인업 (97.1p→84.2p ▽12.9p), 인테리어디자인업 (92.2p→76.9p ▽15.3p)

■ 지역별

상승 : 서울 (75.6p→78.6p △3.0p), 경기/인천 (66.0p→76.9p △10.9p), 대전/충남/충북 (81.4p→84.4p △3.0p), 대구/경북 (72.8p→88.3p △15.5p)
 하락 : 광주/전남/전북 (120.8p→92.5p ▽28.3p), 부산/울산/경남 (103.4p→64.2p ▽39.2p), 강원/제주 (160.0p→90.7p ▽69.3p)

■ 경영부문별

상승 : 채산성 (75.1p→78.9p △3.8p), 자금사정 (72.4p→75.3p △2.9p)
 하락 : 매출 (83.1p→81.4p ▽1.7p), 인력사정 (97.8p→92.6p ▽5.2p)

※ 4분기 경기전망 악화 이유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61.7%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내수 부진'(46.9%)으로 나타남. 이어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20.3%), '경쟁심화'(17.0%), '자금부족'(15.6%), '인건비 상승'(10.3%) 등의 순으로 높았음

※ 4분기 경기전망 호전 이유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60.7%)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내수 활황'(19.9%), '자금난 해소'(11.9%), '정부 경기부양책'(8.9%), '인력난 해소'(4.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3. 국내 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관리현황

■ 향후 고용 확대 계획

구분	있다	없다
비율(%)	27.3	72.7

■ 채용방식

구분	채용관련사이트 게재	지인의 소개	학교 추천의뢰	기타
비율(%)	56.0	34.3	9.6	0.1

■ 채용 선호 경력

구분	신입	5년 미만	6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모름/무응답
비율(%)	28.8	57.7	9.6	3.4	0.5

■ 신입사원 급여 수준

구분	1000만 원 미만	1000~1500만 원 미만	500~2000만 원 미만	2000~2500만 원 미만	2500만 원 이상	모름/무응답
비율(%)	4.6	38.6	38.7	12.0	5.7	0.4

■ 전문디자인업 생산 지수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1/4분기	2012년 2/4분기
전문디자인업	97.8	90.1	110.9	95.3	107.1
서비스업 전체	126.8	127.1	130.8	126.2	128.9

II. 디자인산업 업계동향

1. 국내 업계동향

■ 디자인산업 트렌드

- 언론사 디자인편집기자들, '인포메이션 그래픽 디자인'전 열다
 - 인포그래픽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지만 디자이너들도 아직까지 '장식적인 다이어그램'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
 - 이번 전시를 통해 인포그래픽에 대한 이해와 가능성, 장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꾸밈
- 융합시대를 맞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서비스 디자인'의 국내외 현황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서비스 디자인 관련 컨퍼런스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9일 코엑스에서 열림
- IF, 레드닷, 메종앤드오브제 등에서 '디자인 한류'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한국 디자이너들의 성과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
- '100%디자인런던' 디자인공예그룹 패브리카, 디자인그룹 캄캄 등 다수 참여, 호평을 받음. 올해의 최신 트렌드는 업사이클링 · 수공예적 작업
- 기술 · 예술 · 인문학과 융합... 국내외 디자인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디자인코리아 2012'가 개최됨
 - '디자인 융합'이라는 주제로 기술과 디자인, 예술과 디자인, 인문학과 디자인 등 융합을 테마로 한 주제관,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세계디자인 여행관, 한국 산업 디자인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디자인 DNA관 등으로 구성
- 광명, KTX역세권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이노디자인그룹과 370억 MOU체결
 - 디자인 창업지원센터와 디자인 아카데미 · 콜센터, 국제디자인학교 등 설립
 - 디자인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간 1조원의 매출과 5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거둘 것

■ 디자인산업 경영 일반

- 디자인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짐
 - 정부중심의 디자인 전략 수립, 투자 규모 확대
 - 불공정거래 등 산업발전 저해 요소 제거
 -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관심 고취 및 디자인업계 결속 강화 필요
- 디자인 법률자문단 출범
 -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앞장설 것

2. 해외 업계동향

■ 해외일반

- 레드닷 어워드와 IDEA어워드로 보는 제품디자인의 오늘
 - 친환경 디자인, 착한 디자인이 대세

■ 유럽

- (영국) 최근 유럽 디자인의 화두는 '절제미'
 - 런던올림픽은 이러한 트렌드를 잘 반영, 겉으로 보이기에는 새롭고 화려하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디자인의 완성도와 경제성을 동시에 성공시킴
 - '자연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배려'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연구하여 디자인으로 구현한 것이 성공 요인
- (영국, 스페인) 영국 히드로공항의 히드로 익스프레스는 '서비스 디자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착안해 디자인
- (폴란드) 'Unpolished : 폴란드의 젊은 디자인전' 개최
 - 튀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유머러스함과 발상의 전환이 돋보임
 - 재활용 디자인, 싸고 가공하기 좋은 재료로 만든 생활용품 디자인
- (스웨덴) '랜덤 디자인 알고리즘' 이용하여 400만 개의 '한정판' 생산
- (핀란드 헬싱키) 올해 WDC로 선정된 핀란드 수도 헬싱키
 - '디자인을 일상 속으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디자인으로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냄

■ 미국

- '헤럴드 디자인 포럼 2012'에서 주방기구 전문회사 옥소(OXO)는 생활속 유니버설 디자인 선보임
 - 성별, 연령, 장애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III. 디자인산업 정책동향

1. 국내 정책동향

■ 디자인산업 정책동향

- 한국디자인협동조합은 '디자인 용역'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품목으로 신청
 - 중기간 경쟁제품 195개 품목 가운데 물품이 아닌 용역 서비스가 지정된 것은 전산업무 개발, 자료처리업무 등 총 7개
- 서울시, 6월부터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 적용
 - 디자인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예방
 - 노란색 대문의 '소금지킴이집' : '비상벨', '사인조명', 24시간 작동하는 IP카메라 설치 등
- 서울디자인재단, '2012년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매출증대를 위해 마련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 서울시, '사전검토항목 의무화' 정책에 디자인 항목을 추가함

■ 지식재산권(디자인·특허) 관련 동향

- 특허청, 디자인권 보호 수준과 기간을 대폭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 추진
 -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 수준이 강화 됨
 -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은 현재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등록일~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됨
- 비(非)기능적·감성적 가치까지도 재산권의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는 새로운 지식게임의 시대
 - 지적재산권(IP)이라는 표현까지 고쳐야 할 만큼 특허가 이제 지적 기술의 차원을 넘어 감성과 정서의 심미적 산물로 변하고 있음
- 삼성-애플 특허전
 -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의 법적 공방전은 삼성이 우세한 상황

2. 해외 정책동향

■ 디자인산업 정책동향

- (일본) 속도전식 도시재생사업은 참여한 갈등과 봉어빵 개발을 낳을 뿐, 일본의 롯폰기힐스는 10년 넘는 주민과의 협상 결과임
 -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 동시에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
- (영국) 영국 정부가 공공디자인 정책, 이른바 '리자인(recycle+design)' 방식을 통해 도시 구석구석을 탈바꿈 시키고 있음
 - 영국 런던의 템스 강변에 있는 갤러리 '테이트 모던', 수력발전소를 개조한 '와핑 프로젝트(wapping project)' 등

■ 지식재산권(디자인·특허) 관련 동향

- 미국
 - 미국 특허상표청 USPTO가 2012년에 총 22,000건 이상의 디자인특허(Design patent)를 허여할 것으로 예측
 - 2012년 9월 4일 USPTO가 허여한 디자인특허(Design patent)는 총 410건으로써 그 중에서 약 92%가 출원일 이후 2년 이내에 특허 결정을 받았으며, 특히 약 44%는 출원일 이후 1년 이내에 특허 결정을 받음
 -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프로그램 연장 시행 발표
- 일본
 - 일본 특허청, 디지털 기기 화면 디자인 등의 보호를 위해 디자인법 개정 추진
 - 일본 특허청, 제18회 지식재산정책 실무그룹 회의 주요내용 공개 (「지식재산권 강국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① 지식재산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 ②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각 소위원회의 검토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요약함)
 - 요코하마시, 「요코하마 지식재산 미래기업」 37개사 선정
- 중국
 - 국가지식산업전략망, 직무발명 특허출원 현황 분석

부록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II. 2012년 3/4분기 BSI 조사표(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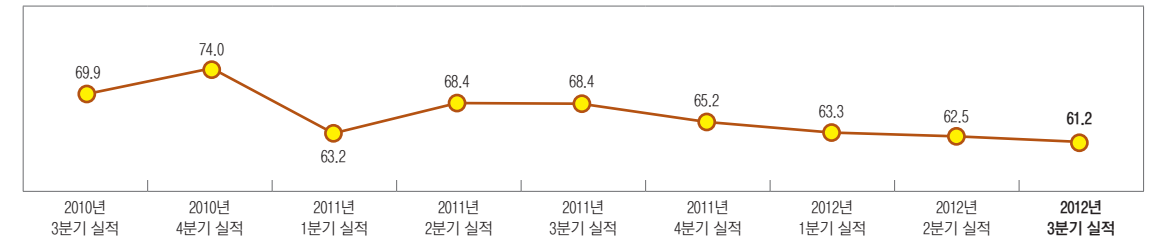
III.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IV. 산업일반 통계자료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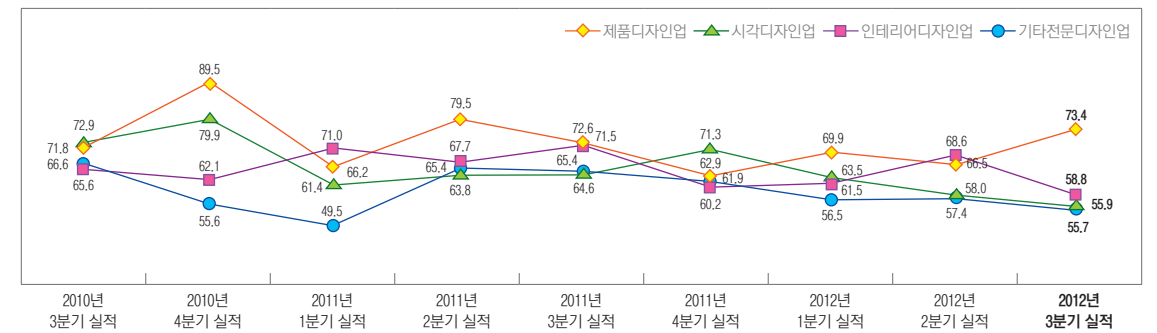
1. 2012년 3/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디자인산업 경기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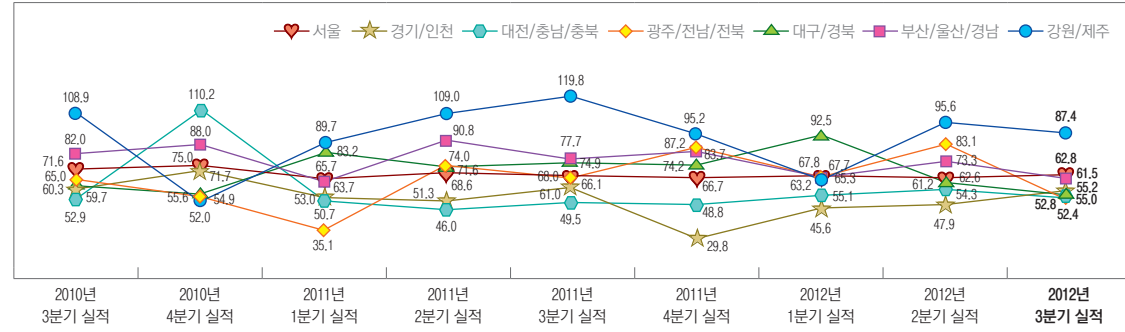
- 전문디자인업의 3/4분기 경기지수(D-BSI)는 61.2p로 전분기 62.5p 보다 1.3p 하락하여 전년 동분기(68.4p)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업종별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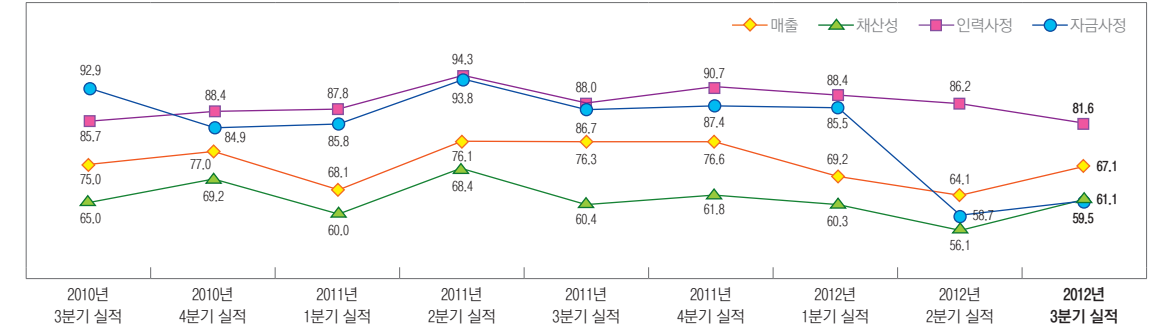
- **(제품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은 73.4p로 전분기 66.5p 대비 6.9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2.6p 대비 0.8p 상승하였음
-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은 55.7p로 전분기 58.0p 대비 2.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5.4p 대비 9.7p 하락하였음
- **(인테리어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은 58.8p로 전분기 68.6p 대비 9.8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1.5p 대비 12.7p 하락하였음
- **(기타전문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은 55.9p로 전분기 57.4p 대비 1.5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4.6p 대비 8.7p 하락하였음

지역별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 **(서울권)** 서울지역의 경기지수는 62.8p로 전분기 62.6p 대비 0.2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8.0p 대비 5.2p 하락하였음
- **(경인권)** 경기/인천지역의 경기지수는 55.2p로 전분기 47.9p 대비 7.3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1.0p 대비 5.8p 하락하였음
-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지역의 경기지수는 52.4p로 전분기 54.3p 대비 1.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49.5p 대비 2.9p 상승하였음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경기지수는 52.8p로 전분기 83.1p 대비 30.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6.1p 대비 13.3p 하락하였음
- **(대경권)**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지수는 55.0p로 전분기 61.2p 대비 6.2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4.9p 대비 19.9p 하락하였음
- **(부울경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지수는 61.5p로 전분기 73.3p 대비 11.8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7.7p 대비 16.2p 하락하였음
- **(기타권)** 강원/제주지역의 경기지수는 87.4p로 전분기 95.6p 대비 8.2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119.8p 대비 32.4p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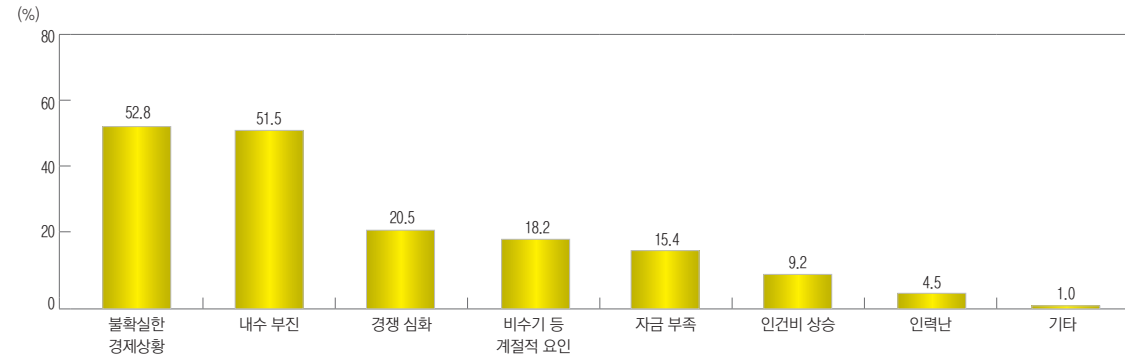
경영부문별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 **(매출)** 매출지수는 67.1p로 전분기 64.1p 대비 3.0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6.3p 대비 9.2p 하락하였음
- **(재산성)** 재산성지수는 61.1p로 전분기 56.1p 대비 5.0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0.4p 대비 0.7p 상승하였음
- **(인력사정)** 인력사정지수는 81.6p로 전분기 86.2p 대비 4.6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8.0p 대비 6.4p 하락하였음
- **(자금사정)** 자금사정지수는 59.5p로 전분기 58.7p 대비 0.8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86.7p 대비 27.2p 하락하였음

※ 2012년 1분기 이전까지는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경기현황을 조사함
2012년 2분기 이후 각각 매출, 재산성, 인력사정, 자금사정으로 조정됨

3분기 경기 악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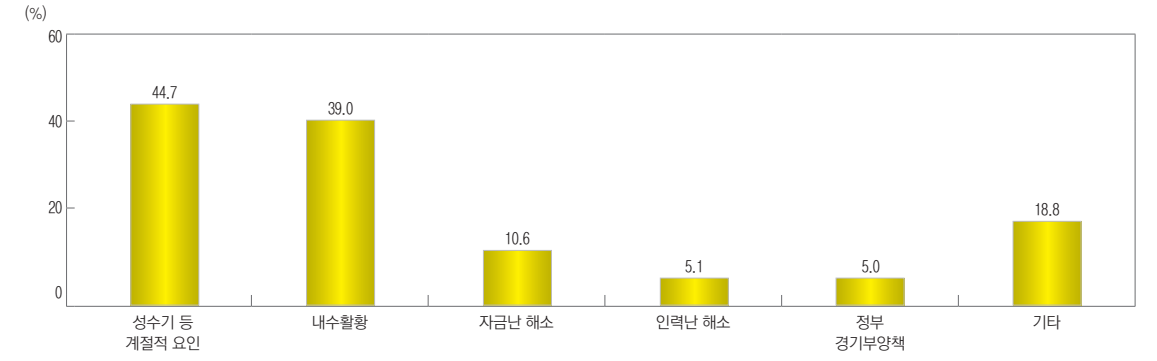


■ 3분기 경기 악화 이유로 '불확실한 경제상황'(52.7%), '내수 부진'(51.5%)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경쟁 심화'(20.5%),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18.2%), '자금 부족'(15.4%), '인건비 상승'(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계층에서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 부진'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제품디자인(61.2%) 업체에서, '내수 부진'은 인테리어디자인(58.8%), 경기/인천(57.4%) 소재 업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 부진	경쟁 심화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	자금 부족	인건비 상승	인력난
전체	52.7	51.5	20.5	18.2	15.4	9.2	4.5
업종	제품	61.2	55.9	32.0	16.1	18.9	6.4
	시각	55.4	47.7	22.1	22.0	19.1	6.9
	인테리어	43.3	58.8	6.7	17.6	15.6	2.1
	기타전문디자인	48.3	44.8	20.5	13.5	3.5	0.0
규모	9인 이하	53.1	51.6	20.4	18.7	15.4	4.5
	10인 이상	44.0	49.8	21.8	8.2	16.4	2.7
권역	서울	54.1	53.3	22.4	13.6	15.8	2.8
	경기/인천	53.7	57.4	12.1	25.4	20.1	11.1
	대전/충북/충남	43.0	40.4	14.0	25.2	9.9	0.0
	광주/전북/전남	49.1	27.8	18.2	16.9	16.9	10.4
	대구/경북	45.7	40.5	15.5	28.3	0.0	0.0
	부산/울산/경남	52.5	48.6	20.8	19.9	6.3	0.0
	강원/제주	50.2	74.9	59.5	65.6	46.5	25.1

3분기 경기 호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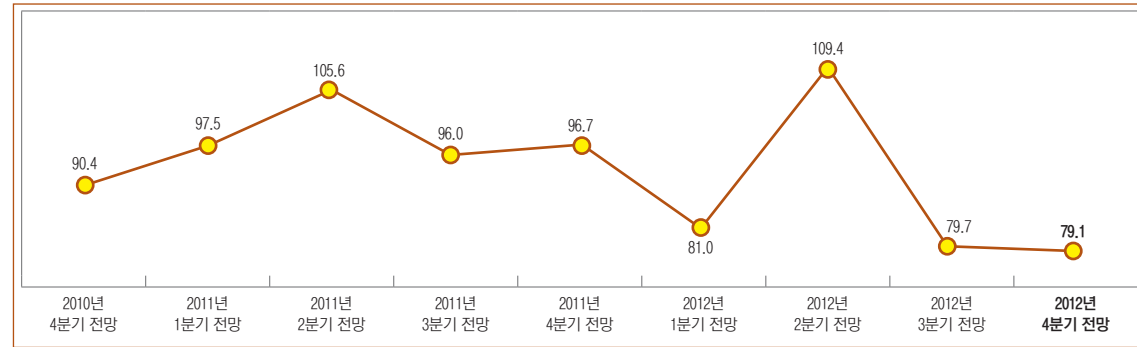
■ 3분기 경기 호전 이유로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44.7%)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내수 활황'(39.0%)이었음. 이어 '자금난 해소'(10.6%), '인력난 해소'(5.1%), '정부 경기부양책'(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은 제품디자인(50.1%), 종사자 9인 이하 업체(50.1%), 경기/인천(54.9%), 광주/전북/전남(64.8%), 강원/제주(100.0%) 소재 업체 층에서, '내수 활황'은 시각디자인(54.9%), 인테리어디자인(79.2%), 10인 이상 업체(66.4%), 광주/전북/전남(100.0%), 부산/울산/경남(63.4%) 소재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내수 활황	자금난 해소	인력난 해소	정부 경기부양책	
전체	44.7	39.0	10.6	5.1	5.0	
업종	제품	50.1	9.9	17.5	6.8	0.0
	시각	45.5	54.9	0.0	0.0	0.0
	인테리어	29.8	79.2	8.8	0.0	15.9
	기타전문디자인	44.8	38.2	17.0	17.0	17.0
규모	9인 이하	50.1	32.8	9.7	6.3	6.2
	10인 이상	20.7	66.4	14.7	0.0	0.0
권역	서울	36.2	43.5	4.3	0.0	4.0
	경기/인천	54.9	15.1	24.9	24.9	12.1
	대전/충북/충남	0.0	0.0	0.0	0.0	0.0
	광주/전북/전남	64.8	100.0	35.2	0.0	0.0
	대구/경북	0.0	36.1	63.9	0.0	0.0
	부산/울산/경남	36.6	63.4	0.0	0.0	0.0
	강원/제주	100.0	21.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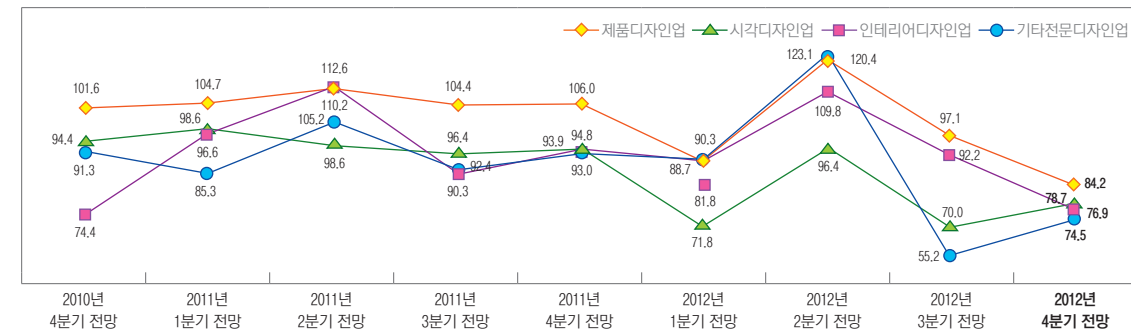
2. 2012년 4/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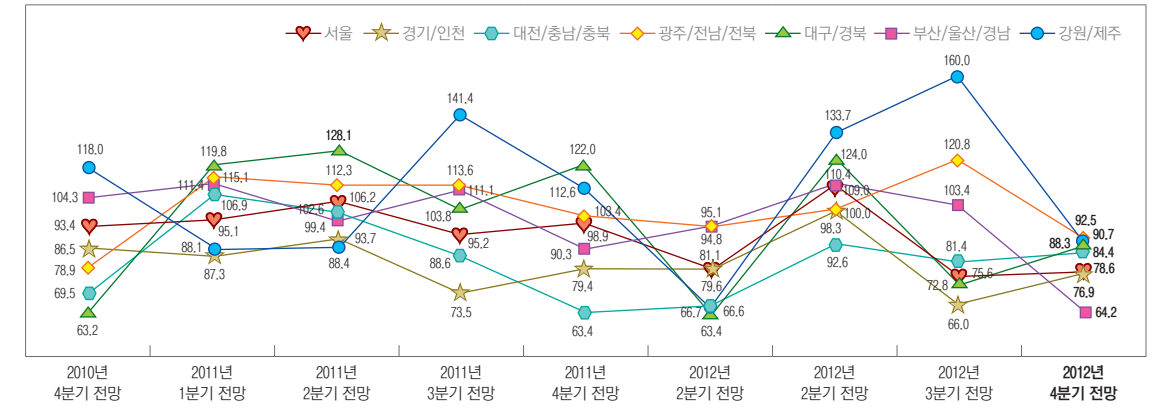
- 전문디자인업의 4/4분기 경기전망지수(D-BSI)는 79.1p로 전분기 79.7p 보다 0.6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96.7p 대비 17.6p 하락함

업종별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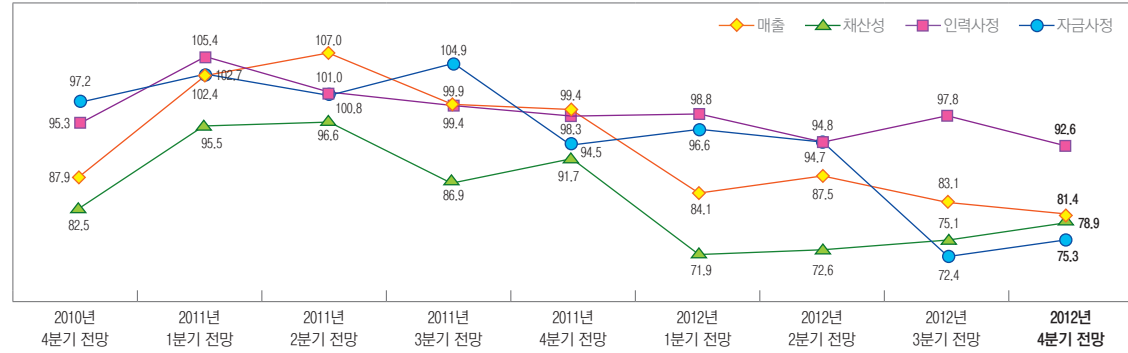
- **(제품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은 84.2p로 전분기 97.1p 대비 12.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106.0p 대비 21.8p 하락하였음
-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은 78.7p로 전분기 70.0p 대비 8.7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4.8p 대비 16.1p 하락하였음
- **(인테리어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은 76.9p로 전분기 92.2p 대비 15.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93.9p 대비 17.0p 하락하였음
- **(기타전문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은 74.5p로 전분기 55.2p 대비 19.3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3.0p 대비 18.5p 하락하였음

지역별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 **(서울권)** 서울지역의 경기지수는 78.6p로 전분기 75.6p 대비 3.0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8.9p 대비 20.3p 하락하였음
- **(경기권)** 경기/인천지역의 경기지수는 76.9p로 전분기 66.0p 대비 10.9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9.4p 대비 2.5p 하락하였음
-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지역의 경기지수는 84.4p로 전분기 81.4p 대비 3.0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3.4p 대비 21.0p 상승하였음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경기지수는 92.5p로 전분기 120.8p 대비 28.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103.4p 대비 10.9p 하락하였음
- **(대경권)**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지수는 88.3p로 전분기 72.8p 대비 15.5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122.0p 대비 33.7p 하락하였음
- **(부울경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지수는 64.2p 로 전분기 103.4p 대비 39.2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90.3p 대비 26.1p 하락하였음
- **(기타권)** 강원/제주지역의 경기지수는 90.7p 로 전분기 160p 대비 69.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112.6p 대비 21.9p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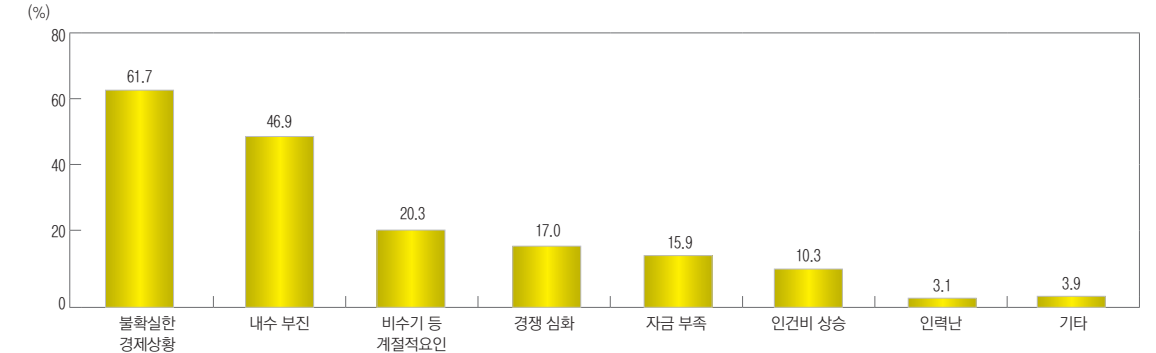
경영부문별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 **(매출)** 매출지수는 81.4p로 전분기 83.1p 대비 1.7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99.4p 대비 18.0p 하락하였음
- **(채산성)** 채산성지수는 78.9p로 전분기 75.1p 대비 3.8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1.7p 대비 12.8p 하락하였음
- **(인력사정)** 인력사정지수는 92.6p로 전분기 97.8p 대비 5.2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98.3p 대비 5.7p 하락하였음
- **(자금사정)** 자금사정지수는 75.3p로 전분기 72.4p 대비 2.9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4.5p 대비 19.2p 하락하였음

※ 2012년 1분기 이전까지는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경기전망을 조사함
2012년 2분기 이후 각각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자금사정으로 조정됨

4분기 경기전망 악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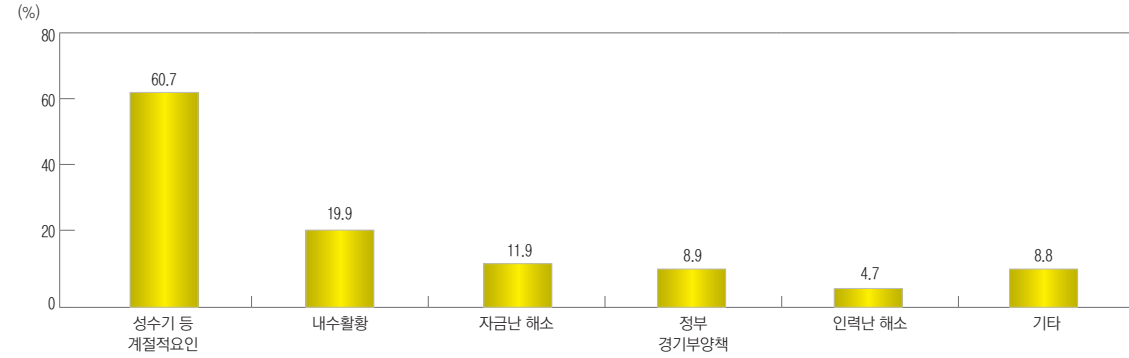


- 4분기 경기전망 악화 이유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61.7%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내수 부진'(46.9%)으로 나타남. 이어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20.3%), '경쟁 심화'(17.0%), '자금부족'(15.6%), '인건비 상승'(10.3%) 등의 순으로 높았음

• 대부분의 계층에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시각디자인(66.6%), 광주/전북/전남(75.1%) 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내수 부진'은 인테리어디자인(60.4%), 대전/충북/충남(58.0%)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 부진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	경쟁 심화	자금 부족	인건비 상승	인력난
업종	전체	61.7	46.9	20.3	17.0	15.6	10.3	3.1
	제품	61.7	50.2	22.7	15.0	13.1	9.8	2.4
	시각	66.6	39.8	15.0	21.3	21.9	9.8	5.0
	인테리어	54.6	60.4	22.9	15.1	17.3	11.6	3.3
	기타전문디자인	61.8	37.8	24.0	13.7	4.8	10.1	0.0
규모	9인 이하	62.2	46.9	20.4	17.4	16.3	10.2	3.1
	10인 이상	54.3	46.9	18.9	10.0	6.1	11.5	2.8
권역	서울	64.2	49.7	18.7	17.6	14.4	9.0	3.5
	경기/인천	56.9	40.6	19.9	10.3	17.7	5.1	0.0
	대전/충북/충남	59.6	58.0	8.0	0.0	14.9	17.5	0.0
	광주/전북/전남	75.1	44.2	24.9	15.4	0.0	30.9	0.0
	대구/경북	30.7	22.8	17.6	31.1	0.0	20.2	0.0
	부산/울산/경남	61.9	40.6	26.6	21.8	25.8	0.0	7.6
	강원/제주	54.3	49.1	61.0	22.9	49.1	42.4	6.7

4분기 경기전망 호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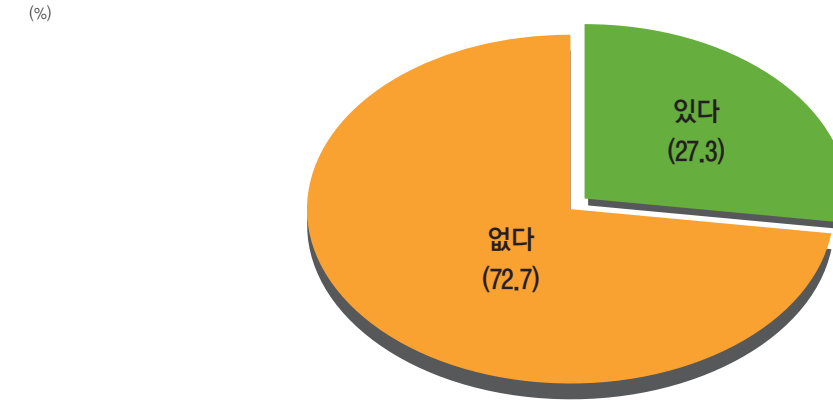
■ 4분기 경기전망 호전 이유로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60.7%)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내수 활황'(19.9%), '지금난 해소'(11.9%), '정부 경기부양책'(8.9%), '인력난 해소'(4.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계층에서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특히, 기타전문디자인(75.4%), 대전/충북/충남(70.7%), 대구/경북(76.6%), 강원/제주(100.0%) 층에서 더욱 높았음
- '내수 활황'은 인테리어디자인(33.8%), 종사자수 10인 이상(44.6%)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내수 활황	지금난 해소	정부 경기부양책	인력난 해소
업종	전체	60.7	19.9	11.9	8.9	4.7
	제품	48.7	21.6	20.1	14.6	0.0
	시각	61.7	17.0	16.2	4.8	4.3
	인테리어	66.4	33.8	1.9	6.4	0.0
	기타전문디자인	75.4	0.0	0.0	10.5	24.6
규모	9인 이하	60.8	15.4	13.6	10.3	5.0
	10인 이상	60.5	44.6	2.9	1.3	3.1
권역	서울	58.1	26.8	8.8	6.6	2.2
	경기/인천	52.8	0.0	28.9	28.1	18.3
	대전/충북/충남	70.7	29.3	0.0	0.0	0.0
	광주/전북/전남	54.9	13.0	46.1	0.0	0.0
	대구/경북	76.6	0.0	0.0	0.0	23.4
	부산/울산/경남	39.4	7.8	0.0	68.4	0.0
	강원/제주	100.0	0.0	8.9	0.0	0.0

3. 국내 전문디자인기업의 인력관리현황

향후 고용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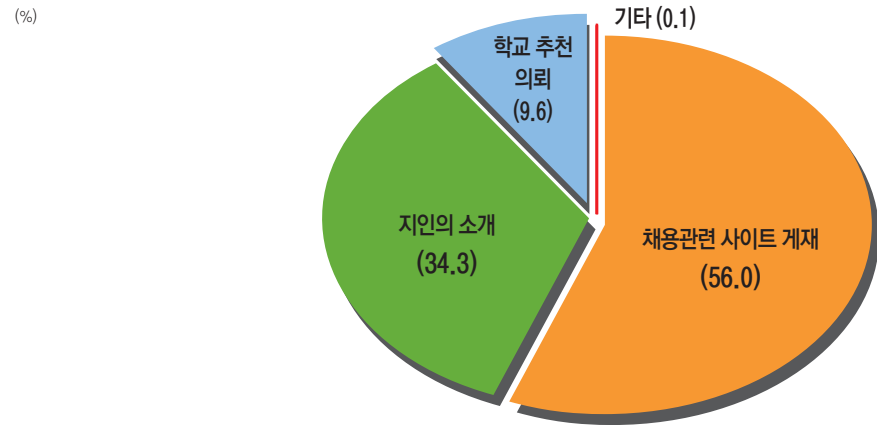


■ 전문 디자인업체의 인력관리 현황과 관련해 향후 고용 확대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 확대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27.3%, '없다'는 비율은 72.7%로 대다수의 업체가 인력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 확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제품디자인(31.5%), 종사자수 10인 이상(38.7%), 강원/제주(47.8%) 소재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있다	없다
업종	전체	27.3	72.7
	제품	31.5	68.5
	시각	28.6	71.4
	인테리어	26.4	73.6
	기타전문디자인	19.5	80.5
규모	9인 이하	25.8	74.2
	10인 이상	38.7	61.3
권역	서울	27.8	72.2
	경기/인천	31.8	68.2
	대전/충북/충남	18.0	82.0
	광주/전북/전남	20.8	79.2
	대구/경북	27.4	72.6
	부산/울산/경남	17.9	82.1
	강원/제주	47.8	52.2

채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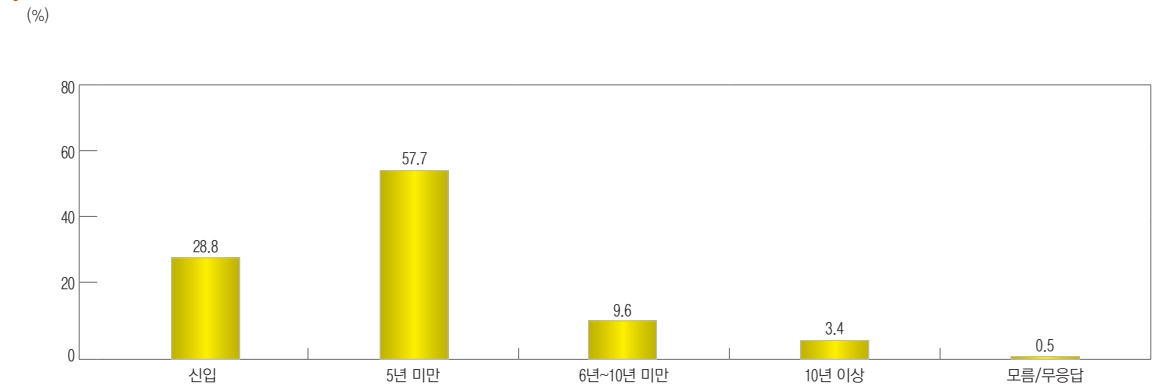


■ 전문 디자인업체의 직원 채용 방식은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56.0%)를 통한 채용이 과반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의 소개'(34.3%), '학교 추천 의뢰'(9.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계층에서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 응답 비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시각디자인(60.8%), 종사자수 10인 이상(85.0%) 업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 '지인의 소개'는 기타전문디자인(44.0%), 경기/인천(40.9%), 광주/전북/전남(53.6%), 대구/경북(43.7%)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	지인의 소개	학교추천 의뢰
전체	56.0	34.3	9.6
업종	제품	55.1	9.2
	시각	60.8	11.1
	인테리어	59.6	5.2
	기타전문디자인	42.9	13.1
	9인 이하	52.1	9.9
규모	10인 이상	85.0	7.2
	서울	59.2	8.6
권역	경기/인천	54.4	4.7
	대전/충북/충남	52.6	18.7
	광주/전북/전남	42.1	4.2
	대구/경북	45.1	11.1
	부산/울산/경남	49.9	14.8
	강원/제주	50.6	33.7

채용 선호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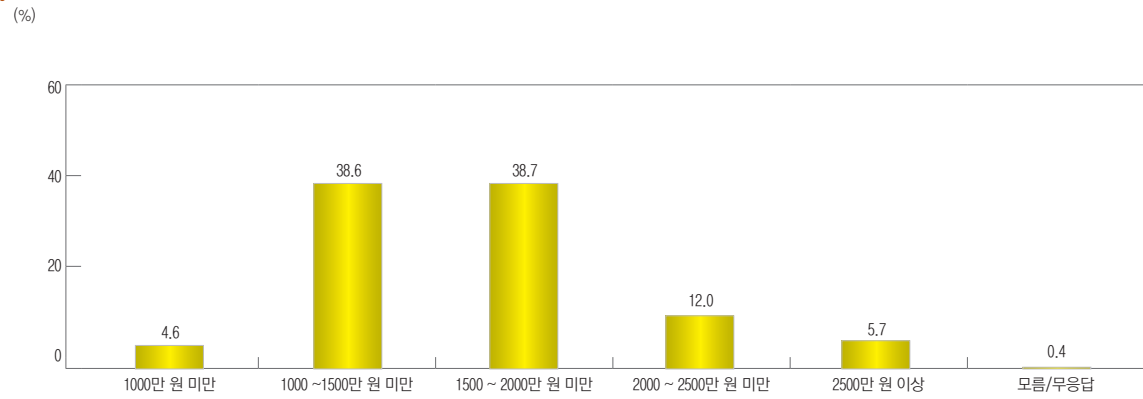


■ 인력 채용을 할 경우 선호 경력으로 '5년 미만'(57.7%) 경력자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신입'(28.8%), '6년~10년 미만'(9.6%), '10년 이상'(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계층에서 '5년 미만' 경력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시각디자인(62.6%), 인테리어디자인(64.2%), 종사자수 10인 이상(64.4%), 대전/충북/충남(64.8%), 부산/울산/경남(66.3%) 소재 업체에서 더욱 높았음
- '신입' 선호도는 기타전문디자인(38.8%), 광주/전북/전남(3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신입	5년 미만	6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28.8	57.7	9.6	3.4	
업종	제품	28.8	56.0	11.5	3.7
	시각	27.1	62.6	8.0	1.7
	인테리어	23.8	64.2	9.1	2.9
	기타전문디자인	38.8	41.7	10.7	7.0
	9인 이하	29.2	56.8	9.8	3.9
규모	10인 이상	25.6	64.4	8.3	0.0
	서울	30.6	56.9	9.0	2.7
권역	경기/인천	27.7	58.3	10.3	3.7
	대전/충북/충남	10.3	64.8	19.3	5.6
	광주/전북/전남	38.6	48.1	13.3	0.0
	대구/경북	20.5	58.1	12.0	9.5
	부산/울산/경남	25.7	66.3	3.2	4.8
	강원/제주	25.9	55.5	11.2	7.4

신입 사원 급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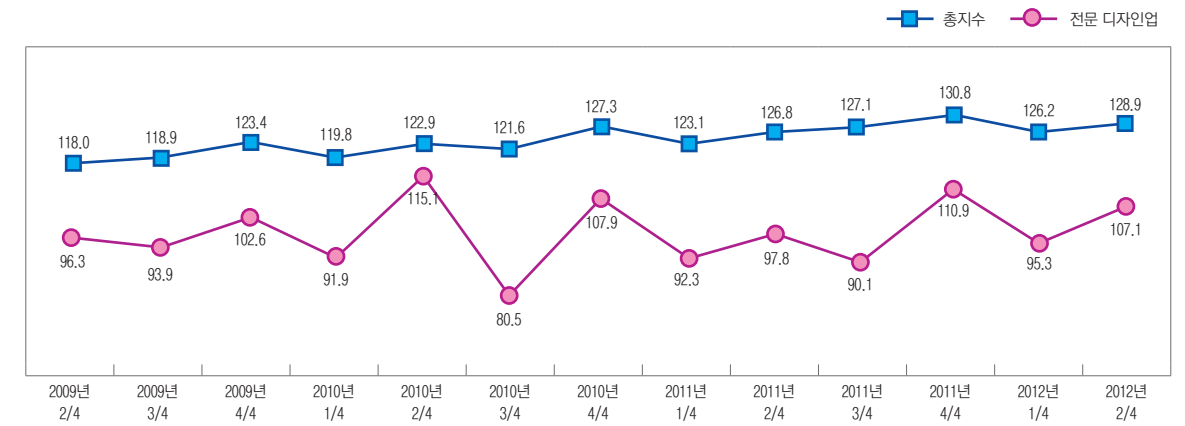


■ 전문 디자인업체의 신입 사원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 '1000~1500만 원 미만'(38.6%), '1500~2000만 원 미만'(38.7%)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2000~2500만 원 미만'(12.0%), '2500만 원 이상'(5.7%), '1000만 원 미만'(4.6%) 순이었음

- '1000~1500만 원 미만' 응답 비율은 기타전문디자인(48.4%), 광주/전북/전남(54.3%), 대구/경북(56.6%)에서, '1500~2000만 원 미만'은 제품디자인(46.2%), 종사자수 10인 이상(55.3%), 경기/인천(44.8%), 대전/충북/충남(44.4%), 강원/제주(71.5%) 소재 업체에서 높게 나타남

	1000만 원 미만	1000~1500만 원 미만	1500~2000만 원 미만	2000~2500만 원 미만	2500만 원 이상
전체	4.6	38.6	38.7	12.0	5.7
업종					
제품	2.5	34.0	46.2	13.2	4.2
시각	2.8	38.6	40.5	11.6	5.8
인테리어	4.4	36.9	37.3	14.9	5.5
기타전문디자인	11.8	48.4	25.1	6.6	8.0
규모					
9인 이하	5.2	41.6	36.5	10.8	5.5
10인 이상	0.0	17.1	55.3	20.5	7.2
지역					
서울	3.2	37.9	38.2	14.6	5.8
경기/인천	5.9	36.3	44.8	7.4	5.6
대전/충북/충남	0.0	27.3	44.4	8.9	14.8
광주/전북/전남	4.2	54.3	28.6	7.9	5.0
대구/경북	8.9	56.6	26.6	3.3	4.7
부산/울산/경남	14.5	42.3	31.7	9.5	2.0
강원/제주	7.4	18.6	71.5	2.5	0.0

4. 전문디자인업 생산 지수



■ 2012년 2/4분기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는 107.1p으로 나타남. 전분기 대비 11.8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97.8p 대비 9.3p 상승함.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는 128.9p로 전분기 126.2p대비 2.7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26.8p 대비 2.1p 증가함

서비스업 생산지수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능하는 핵심지표로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소의 서비스 동향분석 및 연구자료, GDP 추계 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II 디자인산업 업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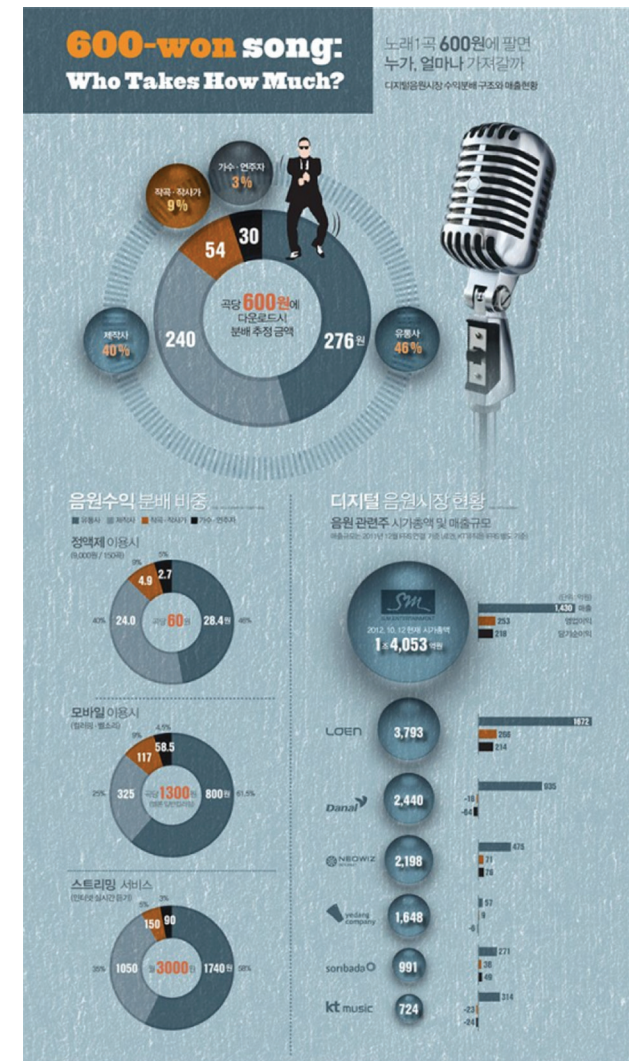
1. 국내 업계동향

디자인산업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인포그래픽'
 언론사 디자인편집기자들, '인포메이션 그래픽 디자인'전 열다

(아주경제 2012. 10. 18)

- 10월 24일~28일 서울 마포 윤디자인연구소 갤러리 뚱에서 'K-Pop, 인포그래픽으로 피어나다'라는 타이틀로 '인포그래픽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자리 마련
- 전시를 기획한 203인포그래픽연구소는 "인포그래픽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지만 디자이너들도 아직까지 '장식적인 다이어그램'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전시는 인포그래픽에 대한 이해와 가능성, 장점이 무엇인지 이해할수 있도록 꾸몄다"고 밝힘
- 장성환 203인포그래픽연구소 대표는 "특히 '다이어그램'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텍스트를 단순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언론현장에서 인포그래픽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과 의기투합해 전시를 열게 됐다"고 말함
- 이번 전시에는 고성주 인포그래픽디자인팀 실장을 비롯, 신문방송 디자인팀 13명의 기자들이 'K-pop' 역사와 한류 주역들인 '아이돌 그룹'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정보를 흥미롭게 인포그래픽으로 해석한 다채로운 작업을 선보임



▲ 장성구 연합뉴스 그래픽뉴스팀 팀장. 디지털 음원시장 분배 구조와 현황

○ '인포그래픽'이란
 정보(Information)와 그래픽(Graphic)의 결합으로, 기사를 읽지 않고도 한 눈에 보이게 하는 키워드

국내 첫 서비스 디자인 컨퍼런스 코엑스에서 개최

(etnews 2012. 07.17)

- 융합시대를 맞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서비스 디자인'의 국내외 현황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서비스 디자인 관련 컨퍼런스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9일 코엑스에서 열림
- 글로벌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 단체인 서비스디자인네트워크(SDN) 한국지부(대표 김용세)가 서비스디자인협의회(회장 이성혜), 서비스사이언스 전국포럼 서비스디자인 연구회, 서울 서비스디자인 협력네트워크 등과 공동으로 마련,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 코리아 컨퍼런스 2012'라고 명명
- 이번 서비스 디자인 컨퍼런스는 국내 서비스 디자인 커뮤니티 연계 강화 및 서비스 분야 혁신과 개선을 위해 비즈니스 관점과 학문 관점에서 각각 접근함
- 비즈니스 · 연구 · 국제 등 3개 트랙으로 진행하며, 버킷 마거 SDN 대표(독일 쾰른 국제디자인대학 교수)를 비롯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자로 나섬
- 국내 컨퍼런스를 후원하는 서비스 디자인 전문기업 포스터 및 레인지후드 렌탈 케어서비스, 주유소 · 편의점 디자인, 건강검진 및 병원의료 서비스 디자인 등 주요 서비스 디자인 사례도 발표함. 대학과 연구소에서 진행한 서비스 디자인 방법과 지원도구도 공개할 예정
- 김용세 SDN코리아 대표(성균관대 교수)는 "서비스 디자인 관련 글로벌 트렌드는 물론 최근 진행된 서비스 디자인 사례 등을 통해 아직 조금은 생소한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함

디자인도 한국 스타일... 세계 우수기업에서 러브콜

(조선일보 2012. 09.18)

- 매 해 해외에서 전해지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성과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
 - iF, 레드닷 등 주요 디자인 시상식을 비롯해 밀라노 가구 박람회, 100%디자인런던 등 우수 행사마다 전통미와 모던함을 고유의 방식으로 접목시킨 '한국 스타일'이 주목받으면서 우수 기업과 계약 등 상업적 성과도 날로 커짐
- 지난 9월 7~11일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진 세계 최대 생활용품 박람회 '메종앤드오브제(Maison & Objet)'에서도 이런 '디자인 한류'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열리는 메종앤드오브제는 디자인 작품의 상업적 가능성을 엿보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받는 행사
 - 5년 전부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으로 매해 10여 명 안팎의 한국 공예가 ·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9명이 참여함



▲ 한성재씨의 스피커 '버터플라이'(왼쪽). 정지민씨의 목걸이 '그로스 2'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공

- 디자이너 한성재(29)씨의 '버터플라이'는 플라이우드와 강철, 알루미늄 등으로 만든 스피커로 "음향 수준보다는 사용자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매개체로서 더 집중한 작품"이라는 게 작가의 설명
 - 내년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 문을 여는 고성(古城) 호텔 겸 복합문화공간 '몽트 자리 샤토(Monte Jarry ch teau)' 측과 계약
- 금속 디자이너 정지민(29)씨가 만든 '그로스(growth)', '스캐터링 시드(scattering seed)' 등 목걸이 시리즈가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음
 - 얼핏 보면 단순히 은(銀)으로 만든 목걸이지만, 안으로 오므라들고 밖으로 펼쳐지는 등 마치 건축이나 조각물을 연상시키는 조형미가 돋보이는 작품
 - 하얏트 호텔 로비 · 스위트룸용 고급 조명으로 유명한 프랑스 조명회사 '램프 그라스(Lamp gras)'와 2014년 제작을 목표로 협업을 진행하자고 제안, 성사 됨
 - 프랑스 건축가 리아드 체라디(Cherradi)가 2014년 베네치아 건축 비엔날레에서 함께 작업하자고 제안해 옴
- 디자이너 김연진(41)씨가 디자인한 실크 사각 보자기 시리즈
 - '마카롱(프랑스 디저트)'으로 유명한 브랜드 '라 뒤레(La Dur e)'의 중동 지사가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 패키지로 쓰겠다"며 대량 주문함
- 한지사(韓紙絲)로 만든 스니커즈를 내놓은 최정아(31)씨는 한 켤레에 49유로(약 7만원) 가격대로 프랑스 · 이탈리아 패션 편집샵 입점을 협의 중
-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측은 "유럽에 한국 디자인을 알리겠다는 소박한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매해 30%씩 판매 실적이 오르고 있다"며 "각종 협업 제의가 쏟아지는 등 디자이너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함

'100%디자인런던' 한국관 캄캄·권선영 등 다수 참여
올해의 최신 트렌드는 업사이클링·수공예적 작업

(한국일보 2012. 09. 23)



▲ '옷 입은 가구'를 콘셉트로, 옷장, 스톨 등의 가구 표면을 패브릭이나 가죽으로 감싼 디자인 스튜디오 캄캄의 가구. 알록달록한 색감이 아동가구처럼 보이지만 유연한 패브릭으로 여닫이문을 만들어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



▲ 패브릭을 규칙적으로 잘라 다양한 형태로 옷이나 조명갓, 쿠션 등을 꾸밀 수 있게 한 디자이너 권선영의 '트랜스포머룩' 시리즈의 조명갓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9월 14~23일 런던 전역에서 펼쳐졌던 런던디자인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최근 트렌드는 버려진 물건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용도 아이템, 수공예적 작업으로 압축될 수 있음. 한국 디자인도 예외가 아님

- 디자인공예그룹 패브리커
 - 원단 본연의 색감과 질감을 버려진 목조 가구에 더해내며 가구를 재해석
 - 버려진 가구에 원단을 한 겹 한 겹 쌓아 깔고 다듬어 완성한 가구는 다채로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이 특징
 - 전 디자인카운슬(영국의 디자인진흥기관) 원장이자 UKTI(영국무역투자청) 자문위원 앤드류 서머스는 "업사이클링 제품은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원단을 이용해 기능과 감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극찬함
- 디자인그룹 캄캄
 - '옷 입은 가구'를 콘셉트로 가구의 색다른 변신을 꾀함
 - 원목 가구의 표면을 알록달록한 천이나 가죽으로 감싼 이들 제품은 100%디자인런던 심사위원들로부터 "매우 혁신적이며, 런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평을 들음
- 디자인투두의 송승용
 - 조명 상판을 평평하게 하거나 탁자처럼 조명을 제작해 협탁 겸 조명 두 가지로 활용 가능하게 함
- 디자이너 권선영
 - 원단을 일정한 간격으로 커팅해 옷, 머플러, 전등갓, 쿠션 커버 등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한 '트랜스포머룩'을 선보임. 옷은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 가능한데, 현장에서 이를 구매한 영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이는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실험할 수 있는 다양성이 좋다"고 말함

○ 런던디자인페스티벌

- 매년 9월 중순에 열리는 런던디자인페스티벌은 각기 다른 주최와 규모의 행사를 한 시기에 아우른다는 점이 특징
- 비즈니스 장이 펼쳐지는 100%디자인런던, 세계 젊은 디자이너들의 자유로운 디자인 정신이 돋보이는 텐트 런던과 디자이너스 블록, 각국의 대표 디자인 브랜드가 참여해 디자인 트렌드가 한눈에 보이는 디자인 정크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전시 등이 주요 행사
-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08년부터 100%디자인런던에 한국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00%디자인런던에서 시상하는 블루프린트 어워드의 4부문 중 2개 부문을 한국 디자이너가 수상함

기술·예술·인문학과 융합... 디자인 융합의 시대가 열린다 '디자인코리아 2012'

(한국일보 2012. 10. 25, 한국경제 2012. 10. 26)

- 국내외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디자인코리아 2012'가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됨



- 아이의 성장수준에 맞춰 반응해 지속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오는 진화형 유아교육로봇(왼쪽)
-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실버세대에게 소통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손자 로봇(가운데)
- 족부인에서 모티프를 얻은 디자인으로 사용자와의 접촉을 통해 건강을 체크해주는 기능을 가진 족부인로봇
- ▲ 미래 생활 로봇의 프로토타입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사용을 디자인이 어떻게 돕는지 보여줌



- ▲ 약통에 불이 들어와 시간에 맞춰 복용할 약을 알려주는 김현선디자인연구소의 "스마트약품복약시스템"(왼쪽)과 항상 서있어 위생적인 한국도자기리빙의 "오독이롤리주걱"

- '디자인 융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기술과 디자인, 예술과 디자인, 인문학과 디자인 등 융합을 테마로 한 주제관, 세계 디자인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세계디자인여행관, 한국 산업 디자인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디자인 DNA관, 지역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는 트리플디자인관, 디자인의 미래관, 어린이를 위한 감성뮤지엄관등 7개 관으로 구성됨

- 공공서비스에 디자인을 접목시킨 작품들에 좋은 반응
 -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방법을 만화로 표현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
 - 전자소송 홈페이지도 소송 단계 전후를 상세히 나눠 도표로 그린 후 다양한 색깔을 사용해 디자인을 개선함 소송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
- '착한 디자인(기존 제품디자인에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인문학적 사고를 더한 것)', 새로운 디자인 코드로 떠오름
 - '리틀 파머스(패션잡화 판매업체)의 가족신발 : 버려진 페타이어를 수집해 세 차례에 걸쳐 분쇄한 후 혼합, 접착해 만들. 충격을 잘 흡수하며 미끄럼 방지에 탁월
 - '에이치콤마'가 선보인 '유니컵' : 대량 생산 중 결함이 생겨 판매하지 못하는 머그컵의 손잡이 부분을 재활용해 유리컵과 결합시킨 것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
 - '인문학과 디자인'을 테마로 한 주제관에는 버려진 병이나 현수막 등을 재사용한 조명과 에코백 등으로 구성된 업사이클링 제품이 전시됨

○ 디자인코리아
- 산업발전의 핵심 역량인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국내외 디자인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전시회 (지식경제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광명, KTX역세권에 디자인클러스터 이노디자인그룹과 3700억 MOU

(한국일보 2012. 09. 23)

- 광명시와 이노디자인그룹, (사)한국기업협력협회는 KTX역세권에 '광명 국제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함
 - 디자인 클러스터는 2016년 초까지 3740억원을 들여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 1부지 3만3000여㎡에 건축 연면적 22만3996㎡ 규모로 조성
- 이노디자인그룹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에 사업체가 있음)
 - 클러스터에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하고 디자인 창업지원센터와 디자인 아카데미·콜센터 등을 설치
 - 디자인 전문 대학원인 국제디자인학교 설립
 - 각종 공연과 패션쇼, 작품 발표회장 등으로 활용할 1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디자인 박물관 건립
- 한국기업협력협회 (중소기업청 산하 경제단체. 270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음)
 - 로봇이나 전기자동차 등 첨단제품 디자인 회사와 LED기업체를 유치할 계획
- 디자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4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연간 1조원의 매출과 5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 양기대 시장은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 유치는 KTX광명역으로 인한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디자인 산업의 세계적인 모델기업인 이케아,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 코리아의 광명 유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힘

디자인산업 경영일반

2011~2012 분기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현황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육성팀)

-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현황(~ 2012. 09. 30) : 총 3,439
 ≡ 전분기 대비 50건 하락 / 전년 동분기 대비 12건 하락

- 2011~2012 분기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현황

분기	2011-1	2011-2	2011-3	2011-4	2012-1	2012-2	2012-3
신고 건수(업체 수)	180	156	100	74	161	138	88

R&D 예산 늘리고 불공정 거래 뿌리 뽑아야 중소업체 보호장치 만들고 예술 아닌 산업으로 인식 전환을 디자인업계 단결력 더 높여야

(서울경제 2012. 07. 23)

고질적인 불공정거래로 국내 영세 디자인전문회사들이 고사 상태에 빠지고, 디자인산업이 전략 부재로 담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디자인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디자인산업이 핵심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 ① 정부 중심의 디자인 전략 수립과 투자 규모 확대
 - 디자인업계에 따르면 디자인과 관련한 지식경제부 투자액은 전체 국가 산업 R&D 예산 가운데 채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지난 10년간 산업 R&D 전체 정부지원액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디자인 분야는 50% 밖에 증가하지 않은 셈
 - 현 정부가 디자인산업 육성이라는 번듯한 구호만 4년째 외치면서 '무전략'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높은 실정
 - ② 불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발전 저해 요소 제거
 - 디자인업계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
 - ③ 디자인을 전략산업으로 인식 전환
 - 많은 디자인전문회사들이 자체 투자 비중이 높은 대기업보다는 공공 발주에 대부분의 매출을 의존하는 점에 비춰 디자인에 대한 정부의 경직된 사고를 개선하는 게 중요
 - 지식경제부의 담당 부처 이름부터 같은 성장동력실에 있는 '로봇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처럼 '디자인브랜드과'가 아닌 '디자인산업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 ④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관심 고취
 - 현재 중소기업 가운데 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13% 정도

- 이마저도 대부분 연간 투자액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됨
- ⑤ 디자인업계 스스로의 결속 강화
 - 디자이너 대부분이 예술가적 기질 때문에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는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더이상 사분오열해서는 안 된다는 고언
 - 디자인업계의 한 관계자는 "디자인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조차 디자인을 예술로서만 이해하려 하지 산업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매우 약하다"며 "디자이너 대부분이 그동안 각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단결을 못했지만 이제는 힘을 합쳐 디자인업계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

디자인 법률자문단 출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앞장설 것"

(서울경제 2012. 10. 10)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0일 서울 서초동에서 한국디자인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디자인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
- 법률자문단의 역할
 - 디자인기업의 설립·운영·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상담·자문서비스 지원
 - 주로 불공정거래, 지적권 분쟁 및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불공정거래 및 지적권분쟁 지원기관과의 연계방안 모색
 - 디자인계 공동 활용을 위한 법률상담사례집을 발간해 피해예방 및 디자인산업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
 - 디자인업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키 위해 이미 개발한 디자인표준계약서와 대가 기준을 이달 안에 디자인진흥원과 지식경제부 고시사항으로 공고할 계획
 - 디자인용역계약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현직 판·검사가 포함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도 11월에 출범·운영할 예정
- 기대효과
 - 디자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자인업계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
 - 디자인산업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도 제작하고 디자인피해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것
 -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간 협업을 통한 성과공유 방식으로 운영해 동반성장의 한 사례가 될 것
- 법률자문단 위원은 총 8명이며 앞으로 10명까지 위원 수를 늘릴 예정. 활동기간은 오는 2014년 8월까지 2년간임

2. 해외 업계동향

해외 일반

가장 눈에 띄는 건 친환경 디자인, 착한 디자인은 필수
레드닷 어워드와 IDEA어워드로 보는 제품디자인의 오늘

(월간디자인 2012. 09)



▲ 에콜로지 종이 병 (DW 프로젝트 디벨롭먼트) - IDEA 어워드 패키지 부문 금상 : 재활용지를 사용한 세제 병으로 간단한 방식으로 내용물을 다시 채울 수 있음

-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친환경 디자인
 - 배기가스를 줄이는 자동차,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 제품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쏟아져 나옴
 -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작업은 캐나다의 제품디자인 전문회사 DW 프로젝트 디벨롭먼트(DW Product Development)가 디자인한 '에콜로지 종이 병(Ecologic Paper Bottle)'
 - 쓰레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세제 병을 대체해 유통 과정의 부피를 거의 1/90이나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도 1/40이나 줄임
 - 재활용지를 사용한 이 종이 병은 간단한 방식으로 내용물을 다시 채울 수 있음
 - '에콜로지'이라는 브랜드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패키지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디자인을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즐길 수 있게 디자인한 점이 주목받음

- 착한 디자인이 대세
 -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에게 에이즈 검사 결과를 즉시 알려주는 음와나(Mwana), 인큐베이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조산아를 위해 37°C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포옹(Embrace)' 등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가치에서 제품을 디자인함

- 이 외에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디지털 제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제품디자인이 많았음



1. 이지스투브(EzyStove) - 레드닷 어워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조업체 : 에르고노미디자인(Ergonomidesign)

-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나무를 때서 음식을 만들지만 빨갛게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 작은 프레임 안에 나뭇가지를 넣어 화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디자인으로 똑같은 양의 나무를 사용했을 때 에너지를 40%나 절감할 수 있는 디자인

2. 음와나 - IDEA 어워드 소셜 임팩트 부문 금상

- 아프리카 잠비아에서는 많은 사람이 에이즈로 죽지만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 모바일 서비스와 서비스 디자인을 접목해 에이즈 검사 결과를 즉시 알려주는 프로젝트



3. 포옹 - IDEA 어워드 소셜 임팩트 부문 금상

- 인큐베이터 혜택을 받지 못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조산아를 살리기 위한 디자인
- 30분만 전기로 데워주면 4시간 동안 37°C의 온도를 유지하는 감싸개
- 조산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 곁에 둘 수 있음

o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 IDEA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
- IDEA 어워드와 레드닷 어워드는 디자인 리서치, 디지털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건축과 도시 디자인 등의 부문을 꾸준히 추가
- 올해 IDEA 어워드는 사회에 영향을 주는 디자인인 '소셜 임팩트 디자인(Social Impact Design)'이란 부문을 추가하면서 산업 디자인의 외연이 넓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유럽

(영국) 디자인에 자연·인간을 품다

(디지털타임스 2012. 10. 17)

- 최근 유럽 디자인의 화두는 '절제미'
 - 최소한의 소재 및 비용으로 가장 세련된 조형을 연출, 덜 가공된 느낌의 거친 표면질감을 살린 디자인, 새로운 도시 풍경(urban look)으로 표현하는 것
 - 런던 올림픽은 이러한 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새롭고 화려하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디자인의 완성도와 경제성을 동시에 성공시킴
 - 특히 올림픽 스타디움의 절제된 디자인 구현은 자연에서 보여지는 조형 구조를 활용하여 자연 통풍이 되는 건축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자연에서 재활용된 재료들로 만들어서 이후에도 대부분의 소재가 재사용 되도록 하는 등 자연과의 최상의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결정체라 할 수 있음
- '절제미' 트렌드를 활용한 디자인의 성공 요인
 - 어려운 유럽 경제상황에서 디자인의 본질('자연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배려'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을 원론적 접근에서부터 연구하여 구현
 - 산업 혁명과 더불어 디자인이란 용어로 정의된 초창기 제품부터 디자이너들은 천연 물질이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재해석하여 만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 오고 있음 (예 : 런던 올림픽 농구경기장)
 - 자연을 재해석한 디자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부담없이 사용되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끊임없이 지속
- 런던 올림픽의 성화봉을 디자인하여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각광 받고 있는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이라는 디자이너는 자연에서 보여지는 유기적 선을 통해 자칫 기계적으로 표현 될수 있는 런던의 명물 버스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보다 친근하게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음

(영국, 스페인) 일상을 바꾸는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시대'

(한국경제 2012. 09. 28)

- 영국 히드로공항의 히드로 익스프레스 - 영국 디자인회사 '탠저린'이 설계 : '서비스 디자인'의 대표적 성공 사례
 - 테이블이 의자 앞이 아닌 옆에 있음 : 짧은 탑승시간에 테이블을 이용해 업무를 보는 이들은 적은 반면 공간을 넓게 확보해 다리를 쭉 뻗고 쉬고 싶어하는 고객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착안
 - 의자 방향이 창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음 : 창문 밖 경관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 심심하지 않도록 아마존의 전자책 리더기 '킨들'을 빌려주기도 : 승객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알찬 15분'을 보낼 수 있음
- 사람들의 일상을 확 바꿀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시대'가 열리고 있음
 - 서비스 디자인은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트렌드
 - 단순히 시각적인 만족을 주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오감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겠다는 전략
 - 유럽이 가장 앞서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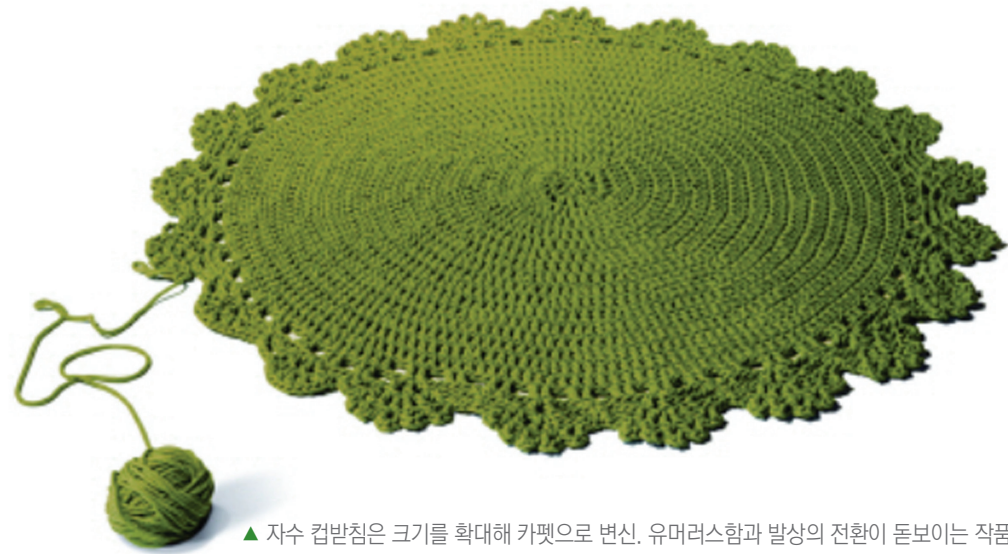
-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영국 디자인회사 이데오(IDEO)와 손잡고 '잔돈은 넣어주세요(keep the change)'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음
 - 고객들이 물건 값을 결제할 때 전체 금액 중 달러 이하 단위를 반올림한 뒤 그 차액을 예금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
 - 예컨대 커피전문점에서 3달러 50센트짜리 카페라테를 사고 4달러를 내면 50센트를 계좌에 돌려줌. 고객들은 더이상 물건을 사고 남은 거스름돈을 저금통에 모아 두었다 은행에 저축하려 갈 필요가 없음
- 스페인 통신회사 텔레포니카는 현지 디자인회사 모메디를 통해 헬스케어 시스템에 서비스 디자인을 접목시킴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
 - 집에서 간단히 혈압 측정을 한 뒤 수치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면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면 환자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진단받을 수 있음
- 제이미 모레노 모메디 최고경영자(CEO)는 "서비스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 트렌드, 고객 성향 등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함

○서비스 디자인이란
- 제품처럼 '보이는' 것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의료, 교통, 관광, 통신 등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함

(폴란드) 'Unpolished : 폴란드의 젊은 디자인전' 개최

나무·플라스틱 등 이용 소파·가구 실생활 밀착형 유머와 발상 전환 돋보여 (한국일보 2012. 08. 12, 월간디자인 2012. 09)

- 몇 년 전부터 자연주의와 기능주의로 대표되는 북유럽 디자인이 호응을 얻으면서 국내에는 다소 생소한 폴란드 현대 디자인 전시회인 'Unpolished : 폴란드의 젊은 디자인' 개최
- 폴란드 디자인전의 특징
 - "폴란드 현대 디자인에는 고유한 색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 폴란드의 전통적인 수공예를 토양으로 하고 있으나 현대 디자인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아직 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음
 - 전시장에서 만난 폴란드 현대 디자인은 유머러스함과 발상의 전환이 돋보임
 - 나무, 종이, MDF, 플라스틱 등 값싼 재료를 이용해 실생활에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
 - 전체적으로 소박하지만 재활용과 비용 절감, 전통 수공예에 대한 젊은 폴란드 디자이너들의 관심 등을 읽을 수 있음



▲ 자수 컵받침은 크기를 확대해 카펫으로 변신. 유머러스함과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작품



▲ TV브라운관을 가공하여 만든 접시



▲ 폴란드 디자이너 오스카르 지엔타의 '플롭 스텔'(2007). 풍선 의자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강철판 내부에 강한 압력의 공기를 주입해 만듦/ 한국국제교류재단 제공

(스웨덴) 대량 생산 제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랜덤 디자인 알고리즘

(trenddb.com 2012. 09. 05)



▲ Absolut Unique, Absolut

- 앵솔루트(absolut.com), '앵솔루트 유니크'라는 신제품 공개
- 400만 개의 '한정판' 생산 → 400만 개의 병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정판'이라는 타이틀을 유지
 - 이번 제품 기획을 맡은 에이전시, 패밀리 비즈니스(familybusiness.se)는 보드카 병에 입혀질 38개의 컬러와 51개의 패턴을 준비한 후 이 요소들을 자유롭게 혼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앵솔루트는 알고리즘에 맞게 공장 생산 라인을 수정해서 기계가 직접 병을 디자인하도록 함
 - 이로 인해 400만 개에 이르는 제품이 모두 다른 패키지 디자인을 갖게 됨
-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한정판과는 다른 개념의,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통해 랜덤하게 디자인 하는 한정판 제품이 등장

(핀란드 헬싱키) '디자인으로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조선일보 2012. 07. 23)

- 올해 '세계 디자인 수도(World Design Capital · WDC)'는 전체 인구가 500만 명인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 헬싱키가 경쟁 도시 46곳을 누르고 2012년 WDC로 지정된 것은 '디자인을 일상 속으로'라는 비전 덕분
 - "디자인으로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제안이 심사위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
- 2년여의 준비 끝에 금년 초부터 WDC가 된 헬싱키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만 300가지
 - 물의 보존과 활용, 활기찬 노년, 버려져 있던 땅을 신도시 공간으로 바꾸기, 도매시장의 식당 개선, 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아이디어 캠프 개최 등



▲ 핀란드 건축박물관과 디자인박물관 사이에 세워진 2012 WDC 전시관. 알토대학교 학생인 피라-펙카 칸토넨이 디자인. 왼쪽 사진은 2012 WDC 로고(가운데 청색 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2012 WDC 아이덴티티 디자인'

- WDC 헬싱키의 웹사이트와 홍보물 디자인도 시민과 소통하는 것을 중시
- 그래픽 디자인 에이전시인 '코로로&모이'는 둥근 형태로 표준화된 WDC 로고 때문에 자칫 홈페이지 등이 단조롭게 되지 않게 배경에 다양한 문양을 활용하도록 디자인 함
- WDC 헬싱키를 계기로 디자인은 핀란드의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지난 5월 10일, WDC 전시관의 개관식에서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은 "경쟁력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혁신에서 디자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경제부와 고용부가 국가 디자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디자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함

미국

「헤럴드 디자인포럼 2012」에서 생활속 '유니버설 디자인' 선보여

(헤럴드 경제 2012. 08. 14)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 성별 · 연령 · 장애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 다양한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인간을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 사회적 소수자까지 배려하는 디자인의 따뜻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
 - 디자인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은 사용자의 의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방기구 전문회사 옥소(OXO) - 유니버설 디자인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
 - '굿 그립 시리즈 · 사진'는 그냥 보기에는 다른 주방기구들에 비해 손잡이가 무겁고 투박해 보이지만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아내가 주방기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 착안해 만든 이 제품은 손목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사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참고

- 스웨덴의 '유니버설 디자인' - 에르고노미 디자인 그룹
 - 인간을 중심에 둔 디자인,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임
 -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아야 하지만 주사기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색깔 볼펜처럼 만든 제노트로핀펜
 - 수많은 승객들에게 음료를 서비스해야 하는 승무원들을 위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만든 주전자 등
- 서울시도 이달 초 복지시설 등 법적 최소시설 기준에 도입된 유니버설 디자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행태와 특성을 반영한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문철 서울시 디자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미국 및 일본에서는 사회 전 분야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디자인 정책 방향이 인프라 구축에 한정됐다면 앞으로는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시민 생활에 도움을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힘

III 디자인산업 정책동향

1. 국내 정책동향

디자인산업 정책동향

"디자인 용역 중기간 경쟁 신규 지정품목으로"
동반성장위 적합업종에 1차 심사대상 이름 올려

(서울경제 2012. 08. 20)

- 각종 불공정거래와 대기업의 영역 침범으로 고통을 겪던 디자인업계가 적극적인 권익 찾기에 나섬
- 그동안 다른 업종에 비해 단합력이 떨어진다는 등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진입, 서비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 20일 디자인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자인협동조합은 지난달말 '디자인 용역'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품목으로 신청
-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받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서비스 중소기업적합업종에도 최근 신청 완료해 디자인산업을 '1차 심사대상'으로 이름 올림
- 중기간 경쟁제품 195개 품목 가운데 물품이 아닌 용역 서비스가 지정된 것은 전산업무 개발, 자료처리업무 등 총 7개

※ 신청 방식

- 조달청에서 아직 디자인 용역에 대한 물품관리번호 등을 규정하지 못한 관계로 표준산업분류법에 의거한 방식으로 이뤄짐
-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0월15일까지 지정 요건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선정 대상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올 12월까지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 서비스 분야 중기적합업종 지정도 디자인업계가 공을 들이는 부분
전문디자인 부문의 경우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촉구한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할 34개 서비스업종 중 하나
- 중소 디자인업계가 권익 찾기에 팔을 걷고 나서는 것은 최근 일부 대기업이 영세기업의 고유영역인 10억원 미만 디자인 프로젝트입찰에까지 나서는 등 영세업체들의 설 자리는 계속 좁아지는 데 반해 이들을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
- 상당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중소 디자인업체 보호 정책 추진이 정부 관계부처나 일부 대기업의 반발, 정치 논리 등에 밀려 무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음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의 경우 환경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건설사업과 관련, 정부 부처와 대기업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서비스 중기적합업종 선정의 경우도 여론의 관심이 높은 제과점, 슈퍼마켓, 자전거 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종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
- 디자인조합 관계자는 "3년마다 한번 오는 기회를 놓칠 경우 영세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또다시 대기업 횡포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며 “적합업종 선정도 우선 논의 대상인 생활형 서비스업종에 밀려 디자인산업은 관심권 밖”이라고 말함

걷기 무서운 골목길에 범죄 예방 디자인 입혔다

(중앙일보 2012. 10. 18)

- 서울시가 6월부터 염리동 달동네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을 적용해 동네를 새로 단장하고 있음
치안범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디자인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
-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을 연결한 1.7km 구간에 운동시설과 전봇대 69개가 설치돼 있음. 운동을 즐기려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
- 전봇대에는 1~69번까지 번호를 매기고 방범용 발광다이오드(LED) 번호, 안전벨 등을 설치, 위급상황 시 경찰에 이 번호를 알려주면 곧바로 정확한 위치가 파악됨
- 노란색 대문의 '소금지킴이집'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누를 수 있는 '비상벨'과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는 '사인조명', 24시간 작동하는 IP카메라가 설치돼 있음. 비상벨을 누르면 집주인이 나와 도움을 줌
- 디자인 개선에 마을 주민들도 호응하여 30가구가 자발적으로 외진 골목의 화색빛 집 담벼락을 밝은 색으로 도색함
소금지킴이집도 주민들이 신청한 가구 중 6곳을 선정 함
- 동네교회는 카페, 마을문고, 택배수령서비스 등을 운영할 커뮤니티 공간인 '소금나루'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 흥성택 염리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내년 1월 완공될 '소금나루'는 24시간 운영되면서 마을지킴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서울시는 내년에 지역 1곳, 공원 3곳, 학교 1곳을 CPTED 적용 지역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에 있음

○셉테드(CPTED)

범죄예방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지역이나 아파트·학교·공원 등 공간을 설계할 때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기법

중소기업도 디자인이 경쟁력 : 「2012년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

(디자인정글 2012. 09. 12)

- 서울디자인재단 구로중소기업센터에서 「2012년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상이 될 중소기업을 공개 모집함
- 「2012년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의 취지
- 디자인 개발능력의 한계로 제품화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전문적인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사업
-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중소기업은 먼저 디자인기업과 매칭되어 디자인 진단이 실시되고 이를 통해 시장분석,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컨셉 전략 수립, 개선방향 설정, 디자인시안제작, 시각화 지원 등으로 약 한 달간의 다각적인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됨

- 이번 사업의 모집대상은 서울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를 통해 총 38개사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됨
- 모집분야는 제품디자인(제조, IT, 통신, 전자, 재활용, 친환경 등), 시각디자인(CI, BI, 홍보물, 패키지 등) 그리고 기타 GUI, UI, 멀티미디어, 환경/공공 디자인, 주얼리·액세서리 디자인, 홈페이지 등

-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
-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의 추가 인력 고용 계획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

지식재산권(디자인·특허) 관련 동향

특허청, 디자인권 보호 수준과 기간을 대폭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

(한국경제 2012. 09. 06)

- 특허청은 “국내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디자인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함
- 그동안 미흡했던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 수준이 강화 됨
- (현재) 스마트폰 내 특정 화상아이콘 등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는 오직 스마트폰 내 부분디자인으로서 권리만 인정받음. 내비게이션 LCD TV 등 액정 화면이 있는 다른 IT제품 내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등록을 따로 해야 함
- (개정안) 한 제품에만 GUI 디자인권을 등록하면 모든 제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함. 또한 브랜드아이덴티티(BI) 혹은 기업아이덴티티(CI)에 사용되는 로고를 디자인 차원에서 적극 보호
- 특허청 관계자는 “로고는 보통 압축된 형태로 표현되므로 너무 단순하거나 식별력이 없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큰데,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디자인권을 대신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함
-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은 현재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등록일~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됨
법 이름도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법'으로 바뀜
- 특허청은 또 디자인권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하면 여러 국가에 대한 출원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협약 '헤이그협정' 가입을 내년 안으로 추진함. 현재 디자인권은 개별 국가에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헤이그협정에 가입하면 한국은 특허(PCT 국제출원), 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에 이어 디자인권에 대한 국제출원시스템을 갖추게 됨

비(非)기능적·감성적 가치까지도 재산권의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는 새로운 지식게임의 시대

(중앙일보 2012. 08. 31)

-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판결은 문명·문화사적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신호
- 지적재산권(IP)이라는 표현까지 고쳐야 할 만큼 특허가 이제 지적 기술의 차원을 넘어 감성과 정서의 심미적 산물로 변하고 있음
- 상품 개념이 기능에서 소통으로, 사용에서 감동으로 바뀌면서 특허 심사도 예술품처럼 감상하고 감정하는 세상이 된 것

- 초(超)지적재산권이라는 새로운 아레나(로마 원형극장의 모래 경기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아야만 하는 시대
- 미국은 175년만에 선 발명을 선 출원제로 수정하는 등 복잡한 특허법을 크게 개정함
 - 보통 3년 걸리던 수속이 1년이면 가능
 - 구글, 스탠퍼드대 : 미국 대학들은 IP(지식재산) 전담부서를 만들어 학생들이 특허를 얻도록 복돋우고, 그 특허료를 나눠가져 학교 재원을 마련
 - 이에 비해 우리 사회는 낮은 차원의 '반값 등록금' 목소리만 요란한 실정. 미국은 대선 때마다 줄기세포 등 새로운 특허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지만, 우리 대선 후보들 가운데 특허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
- 트레이드 드레스가 일반화되는 미래 상품시장에서는 “저거 삼성 거잖아”라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 감각과 창조적 상상력으로 차별화한 제품들을 만들어 가야 함
 - 그렇게 하려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그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인터페이스 혁명을 통해 새로운 지적재산의 강국이 돼야 함

애플 - 삼성전자 특허 소송, 미국에서는 애플 승, 나머지는 삼성이 승

재경일보 2012.10.25

- 전 세계에 걸쳐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애플이 승리하고 나머지는 삼성이 승리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서는 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
 - 오는 12월 미국 법원에서 양사의 특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미국 법원의 판결이 '팔이 안으로 굽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지켜야 하는 삼성전자로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2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줌
 - ITC의 토머스 펜더 심판관은 삼성전자-애플간 소송의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과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였던 고(故) 스티브 잡스가 보유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
 - 펜더 심판관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에는 아이폰의 디자인 관련 특허와 잡스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한 터치 스크린 기술 관련 특허가 각각 1건 포함됨
 -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확정되면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미 ITC의 판결이 나오기 전,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냄
 -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군과 태블릿PC 제품군이 자사의 상용특허인 멀티터치(EP 948)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지난 6월에도 애플의 아이폰3G·3GS·4와 아이패드1·2가 삼성의 3G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보상 판결을 내리며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음
-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9월 애플이 제기한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영국 런던 법원은 지난 18일 디자인 특허 관련 항소심에서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판결, 애플에 굴욕을 안겨다 줌
- 호주와 유럽 등의 소송에서도 애플은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일본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에 대해 기각한 바 있음
- 국내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옴

2. 해외 정책동향

디자인산업 정책동향

일본

속도전식 도시재생사업은 참여한 갈등과 붕어빵 개발을 낳을 뿐 일본의 롯폰기힐스는 10년 넘는 주민과의 협상 결과

(해럴드 경제 2012. 10. 02)

-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도시재생이 최대 이슈로 떠오름
 - 기존 커뮤니티 주민들과의 협력문제, 정부의 개입 여부 등을 놓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함
- 건축계의 거장 안도 다다오는 도쿄의 대표적 도시재생 산물인 롯폰기힐스나 오모테산조 프로젝트 등이 10년 넘게 주민과 관청이 협상을 벌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타협하는 자세를 우선적으로 강조함
 - 롯폰기힐스 인근에 추진 중인 80만㎡ 규모의 도시재생단지 역시 본인이 직접 3개월에 한 번씩 설명회를 갖고 있다고 밝힘
 -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유지, 보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
 - 기존의 커뮤니티를 깨지 않으면서 가장 사람냄새 나는 도시재생이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
- 안도 교수는 오늘날 일본의 실패는 밖을 보지 않으려는 성향에서 비롯됐다고 지적
 - 많은 선례를 보고 이것을 차용해 좋은환경을 만들어내려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본 사회는 이를 무시했다는 것
 - 규제에 억눌려 프로젝트에 시대의 흐름을 반영치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은 고령화, 저출산, 자원고갈 등이 함께 녹아들어간 100년 이상 유지되는 우리 모두의 공유자산이어야 한다고 강조

영국

'홍물' 폐발전소가 갤러리로, '리자인(recycle+design) 정책'의 힘

(한국경제 2012. 09. 26)

- 영국 정부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통해 도시 구석구석을 탈바꿈시키고 있음
 - 새 건물이나 시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발전소와 공장에 디자인을 입히는 전략, 이른바 '리자인(recycle+design)' 방식. 이를 통해 영국 전통은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시키고 있음
- 영국 런던의 템스 강변에 있는 갤러리 '테이트 모던'
 - 2000년 세워진 테이트 모던은 '홍물'에서 '명소'로 탈바꿈한 곳-이곳은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가 있던 곳으로 1981년 발전소가 폐업한 뒤 19년간 방치
 - 이 건물 때문에 주변 지역이 슬럼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런던시는 기존 외관은 그대로 놔두고 내부를 리모델링해 갤러리로 재탄생시킴
 - 결과는 대성공, 매년 500여만명이 테이트 모던을 찾고 있음
- 수력발전소를 개조한 '와핑 프로젝트(wapping project)'
 - 내부를 리모델링한 테이트 모던과 달리 예전의 수력발전 장비들을 그대로 둔 채 레스토랑과 갤러리를 연 것
 - 이색적인 분위기 덕분에 많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몰리는 런던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됨
-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인 토머스 헤더워 역시 영국 정부와 손잡고 런던의 한 폐공장을 식물원으로 꾸림
- 런던 남동부에 있는 울위치 (중세 때부터 대규모 무기고가 있었음)
 - 영국 디자인진흥기관인 디자인카운슬은 이곳을 3700여채의 주택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음
 - 200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 역시 기존 외관은 그대로 둔 채 채광 효과를 높이는 등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건물을 개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리자인 정책을 실시
 - 런던 거리의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매달려 있는 '검드롭빈(gumdropbin)-행인들이 씹던 껌을 버리는 껌 수거통'이 대표적
 - 걸보기에는 평범한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씹던 껌을 녹여 만든 재생 플라스틱

○리자인

- 리사이클(recycle)과 디자인(design)의 합성어로, 폐기물에 디자인을 적용해 새롭게 만든다는 뜻
- 이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패션, 인테리어, 건축 등 디자인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

지식재산권(디자인·특허) 관련 동향

미국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 관련 현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09. 17)

- 미국 특허상표청의 2012년 실용특허 허여 건수 추정
 -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2012년에 미국 특허상표청 USPTO가 총 22,000건 이상의 디자인특허(Design patent)를 허여할 것으로 예측함
-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심사 및 허여 소요기간 분석
 - 2012년 9월 4일 기준, USPTO가 허여한 디자인특허(Design patent)는 총 410건으로써 그 중에서 약 92%가 출원일 이후 2년 이내에 특허 결정을 받았으며, 특히 약 44%는 출원일 이후 1년 이내에 특허 결정을 받음

미국 특허상표청,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프로그램 연장 시행 발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07. 16)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AFCP)」 프로그램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
 - USPTO는 심사관과 출원인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심사절차를 간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AFCP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해 왔음

○AFCP 프로그램이란

- 심사의 최종거절(final rejection) 이후에 출원인이 해당 출원에 관해 수정, 진술 등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검토 요청이 없더라도 심사관이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임
- 심사관은 그 답변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의해 부여된 시간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 식물특허, 재발행특허의 출원에 대해서는 3시간,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1시간의 추가시간이 주어짐

- USPTO는 이 프로그램의 연장 시행으로 더욱 많은 출원인이 최종 결정 이후에도 그 출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USPTO는 AFCP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equests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USPTO는 프로그램 연장 시행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업무절차의 확인·개발에 활용할 계획임

일본

일본 특허청,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 등의 보호를 위해 디자인법 개정 추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08. 20)

- 8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 조작 화면의 디자인 등을 지식재산으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최근에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보호 대상 및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디자인법을 검토해 화면 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제조·생산 기업들은 사용자가 디지털 기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 본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기업별로 고유의 화면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그러나 일본의 현행 디자인법상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따라 JPO는 미국, 유럽 등과 같이 디지털 기기 조작 화면 등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법을 개정할 방침임
 - 즉, JPO의 이번 디자인법 개정 계획은 지식재산으로서 화면 디자인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또한 JPO는 디자인법 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화면 디자인에 자동차 운전석의 전자 화면이나 게임기의 화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임
 - 한편 일본은 일본에서 출원·등록된 디자인이 다른 국가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디자인법 개정안은 2013년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일본 특허청, 제18회 지식재산정책 실무그룹 회의 주요내용 공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09. 03)

- 「지식재산권 강국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① 지식재산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 ②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각 소위원회의 검토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요약함
- 특허출원과 관련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의 경우 사업전략을 구상하는 초기단계에 실시해야 하며, 연구개발 또는 판매전략 단계에서 특허출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일본의 특허출원 경향을 살펴보면, 특허 5급 이외의 출원은 극히 적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특허부여(등록) 후의 권리재검토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필요로 함
- 디자인·상표와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해서는 디자인법 개정 및 새로운 형태의 상표도입을 향한 상표법 개정 등의 조기 실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서비스산업의 해외전개 관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보호가 급선무이며,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함
 - 화면디자인 보호 확충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행조사에 따른 부담증가가 문제시 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판단됨
- 새로운 제도도입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이용자가 제도 본래의 취지·목적에 인식하여 그 활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보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외 최신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등의 해외사업 전개에 있어서 연구개발에서 침해대책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을 실시할 해외 지식재산프로듀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
 - 지식재산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

요코하마시, 「요코하마 지식재산 미래기업」 37개사 선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09. 17)

- 8월 24일, 일본 요코하마시(横浜市)는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을 경영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요코하마 지식재산 미래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37개의 기업들을 「요코하마 지식재산 미래기업」으로 선정함
 - 「요코하마 지식재산 미래기업 지원사업」은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기업들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들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요코하마 지식재산 미래기업 지원사업」은 2011년에 개시되어 첫 해에 29개 기업들을 「요코하마 지식재산 미래기업」으로 선정하였고, 올해에는 8개 기업들을 추가하여 총 37개 기업들을 선정함
 - 동 사업의 지원조건은 ① 본사가 요코하마시에 소재해야 하며, ② 출원 중인 특허나 디자인을 보유해야 하며, ③ 법인세를 체납하지 않은 중소기업이어야 함
 - 요코하마시는 「요코하마 지식재산 미래기업」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기업들에 대하여 ① 사업계획, ② 지식재산활동의 목적 및 현황, ③ 지식재산활동 실행방법, ④ 지식재산활동을 통한 사업 기여도의 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함
- 「요코하마 지식재산 미래기업」으로 선정되면 ① 금융 지원, ② 요코하마시 웹사이트 또는 홍보 매체를 활용한 기업 홍보 지원, ③ 요코하마시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사업 조성금 우대 지원, ④ 일본 국내 특허출원 심사 수수료 일부 지원, ⑤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일부 지원, ⑥ 무료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음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전략망, 직무발명 특허출원 현황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07. 09)

- 6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전략망(中国国家知识产权战略网)은 중국의 연도별 직무발명 특허출원(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현황을 발표함
 - 중국 특허법 제6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에 귀속되며 발명자가 기관의 설비나 조건을 활용하여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자와 기관 간에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이번 현황분석에서 국가지식재산권전략망은 중국이 선진국들에 비해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 비율이 낮다고 평가
 - 선진국 :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은 전체 특허출원의 약 95%를 차지
 - 중국 : 2007년 이전까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이 전체 특허출원의 50% 이하를 차지함. 즉 198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중국의 직무발명 특허출원은 전체 특허출원 중에서 36.9%에 불과함
 - 2008년 중국의 직무발명 특허출원 건수는 364,386건으로서 최초로 전체 특허출원의 절반을 넘어선 50.8%를 차지함. 2010년에도 직무발명 특허출원 건수가 658,570건으로서 전체 특허출원의 59.4%를 차지함
- 한편 국가지식재산권전략망은 2011년에 발명특허 부문의 직무발명 특허출원 건수가 324,224건에 이르러 전체 발명특허 출원에서 78%를 차지했다고 설명
 - 2011년 직무발명 특허출원 100대 상위기관은 대부분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차지하였으며 중국 기업의 비중은 적은 편임. 그러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획득하여도 이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적어서 특허 실시율이 낮음
- 국가지식재산권전략망은 직무발명 출원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함
 - 직무발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발명으로 출원되어야 할 특허가 비직무발명으로 출원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특허 귀속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음
 - 직무발명에 따른 수익 등을 해당 기관이 통제하여 그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직무발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직무발명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부록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 조사설계

구분	디자인전문업체
모집단	전문디자인업체
표본 수	500업체
표본추출방법	권역/업종/규모별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Proportionate Quota & Systematic Sampling)
표본오차	±4.0%포인트(95%신뢰수준)
주요조사내용	경기전반, 매출, 채산성, 자금사정, 인력사정에 대한 실적 및 차분기 전망 등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방법	전화조사(Telephone Survey)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 ~ 10월 5일

■ 조사목적

분기별 전문디자인업체 경기조사를 통해 D-BSI (Design Business Survey Index) 산업 경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산업 분야별·지역별·경영활동별 경기 전망 및 실적을 파악하여 전문디자인 업체의 경영전략 수립과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대상 및 방법

- 디자인산업 경기조사는 전문디자인업체의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기예측기법임
- 조사결과인 디자인산업 경기지수는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조사한 것임

$$\text{※ 업종별 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적음을 나타냄

- 분기별 전문디자인업체 경기조사는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패션, 섬유, 귀금속 및 장신구 등) 등 총 4개 세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500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
- 표본은 업종과 지역을 고려하여 층화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 가중치는 설계 가중값,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제1층 : 7개 권역 (서울/경인/충청/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호남/강원제주)

※ 제2층 : 4개 업종 (시각/제품/인테리어/기타전문디자인업)

※ 제3층 : 2개 규모(9인 이하/10인 이상)

층화추출법 : 전체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을 일련의 하위집단들로 층화시킨 다음 각 하위집단에서 적절한 수의 표본을 뽑아내는 방법

- 응답업체 특성

BASE : 전체응답자		조사 사례수	가중 사례수	비율(%)
전체		(500)	(3,453)	100.0
업종별	제품	(137)	(917)	26.6
	시각	(185)	(1,173)	34.0
	인테리어	(117)	(784)	22.7
	기타전문디자인	(61)	(579)	16.8
기타 업종 구분	패션	(28)	(252)	43.4
	섬유	(24)	(231)	39.8
	귀금속 및 장신구	(4)	(42)	7.2
	기타	(5)	(55)	9.5
규모별	9인 이하	(419)	(3,041)	88.1
	10인 이상	(81)	(412)	11.9
권역별	서울	(292)	(2,228)	64.5
	경기/인천	(67)	(415)	12.0
	대전/충남/충북	(26)	(160)	4.6
	광주/전남/전북	(27)	(156)	4.5
	대구/경북	(28)	(160)	4.6
	부산/울산/경남	(43)	(243)	7.0
	강원/제주	(17)	(90)	2.6
향후 고용 확대계획	있다	(142)	(944)	27.3
	없다	(358)	(2,509)	72.7

※ 지수 활용상의 유의점

- 디자인산업 경기지수조사에 있어서 매분기 지수는 전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특정분기의 경기 동향은 전분기의 동향과 상호 연관되어 파악하여야 함
- 산업별 동향에 있어서 회답업체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이들의 대표성이 문제되어 동종목의 경기 동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예 : 강원·제주지역의 기타전문디자인업 등)
- 일반적으로 조사표 작성자는 경기회복기에는 경기전망을 낙관적으로 응답하고 후퇴기에는 비관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실시된 조사결과는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 상한 200, 하한 0의 범위 내에서 기준선 100을 갖는 D-BSI의 변동추이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값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성격을 편의적으로 정의하여 적용하였음

※ 매우호조(D-BSI 150이상)

※ 호 조(D-BSI 110이상~150미만)

※ 보 합(D-BSI 90이상~110미만)

※ 부 진(D-BSI 50이상~90미만)

※ 매우부진(D-BSI 50미만)

부록 II. 2012년 3/4분기 BSI 조사표(설문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2012년 3/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디자인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조사, 발표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과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이번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 말씀 드리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귀사에서 응답한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장

■ 문의 및 송부처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문희정 ☎ 02-3488-2728/ FAX 02-598-7652)

1. 우선 기업 일반현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면접원

사업체명			
연락처	지역번호 포함 ()		
업종	① 제품 ② 시각 ③ 인테리어 ④ 기타전문디자인업 - □ 패션, □ 섬유, □ 귀금속 및 장신구, □ 기타()		
지역(시/도)		종사자수	
기업구분	① 국내기업 ② 외국계기업	응답자	

2. 지금부터 귀사의 2012년 3분기 경기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1. 귀사의 2012년 3분기의 전반적인 경기는 2분기에 비해 어떠했습니다가?

호전	동일	악화
1 -----	2 -----	3 -----

2-1-1. (호전 응답자) 경기가 호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내수활황 ② 정부경기부양책 ③ 자금난해소 ④ 성수기등계절적요인
 ⑤ 인력난해소 ⑥ 기타 ()

2-1-2. (악화 응답자) 경기가 악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내수부진 ② 경쟁심화 ③ 불확실한경제상황 ④ 자금부족
 ⑤ 비수기등계절적요인 ⑥ 인력난 ⑦ 인건비상승 ⑧ 기타 ()

2-2. 사업 부분별로 2012년 1분기 대비 2012년 2분기의 경기 실적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매우호전	동일	매우악화
1	귀사의 지난 3분기 매출은 2분기 대비 어떠했습니다가?	①	②	③
2	귀사의 채산성(순이익)은 어떠했습니다가?	①	②	③
3	귀사의 자금사정(자금조달, 부채상환 등)은 어떠했습니다가?	①	②	③
4	귀사의 인력사정(인력수급)은 어떠했습니다가?	①	②	③

3. 지금부터는 2012년 4분기 경기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귀사의 2012년 4분기 전반적인 경기는 2012년 3분기에 비해 어떠할 것 같습니다가?

호전될 것 같다	동일할 것 같다	악화될 것 같다
1 -----	2 -----	3 -----

3-1-1. (호전 응답자) 4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수활황 ② 정부경기부양책 ③ 자금난해소 ④ 성수기 등 계절적요인
 ⑤ 인력난해소 ⑥ 기타 ()

3-1-2. (악화 응답자) 4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수부진 ② 경쟁심화 ③ 불확실한 경제상황 ④ 자금부족
 ⑤ 비수기 등 계절적요인 ⑥ 인력난 ⑦ 인건비상승 ⑧ 기타 ()

3-1-3. 사업 부분별로 2012년 3분기 대비 2012년 4분기의 경기전망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호전	동일	매우악화
1	귀사의 매출은 3분기 대비 4분기에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2	귀사의 채산성(순이익)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3	귀사의 자금사정(자금조달, 부채상환)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4	귀사의 인력사정(인력수급)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4. 지금부터는 귀사의 인력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4-1. 귀사는 향후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4-2. 귀사의 채용방식은 주로 어떠한가요?

- ① 채용관련 사이트 게재 ② 지인의 소개 ③ 학교추천 의뢰 ④ 기타()

4-3. 귀사는 채용을 할 경우 주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선호합니까?

- ① 신입 ② 5년 미만 ③ 6년~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4-4. 귀사의 신입사원 급여 수준은 어떠한가요?

- ① 1000만 원 미만 ② 1000~1500만 원 미만 ③ 1500~2000만 원 미만
 ④ 2000~2500만 원 미만 ⑤ 2500만 원 이상

부록 III.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 전반적

분기		10. 3/4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3/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69.9 (90.4)	74.0 (97.5)	63.2 (105.6)	68.4 (96.0)	68.4 (96.7)	65.2 (81.0)	63.3 (109.4)	62.5 (79.7)	61.2 (79.1)	-1.3 (-0.6)
업종별	제품	71.8 (101.6)	89.5 (104.7)	66.2 (110.2)	79.5 (104.4)	72.6 (106.0)	62.9 (88.7)	69.9 (120.4)	66.5 (97.1)	73.4 (84.2)	6.9 (-12.9)
	시각	72.9 (94.4)	79.9 (98.6)	61.4 (98.6)	63.8 (96.4)	65.4 (94.8)	71.3 (71.8)	63.1 (96.4)	58.0 (70.0)	55.7 (78.7)	-2.3 (8.7)
	인테리어	65.6 (74.4)	62.1 (96.6)	71.0 (112.6)	67.7 (90.3)	71.5 (93.9)	60.2 (81.8)	61.5 (109.8)	68.6 (92.2)	58.8 (76.9)	-9.8 (-15.3)
	기타	66.6 (91.3)	55.6 (85.3)	49.5 (105.2)	65.4 (92.4)	64.6 (93.0)	61.9 (90.3)	56.5 (123.1)	57.4 (55.2)	55.9 (74.5)	-1.5 (19.3)
지역별	서울	71.6 (93.4)	75.0 (95.1)	65.7 (106.2)	68.6 (95.2)	68.0 (98.9)	66.7 (81.1)	63.2 (110.4)	62.6 (75.6)	62.8 (78.6)	0.2 (3.0)
	경기/인천	59.7 (86.5)	71.7 (87.3)	53.0 (93.7)	51.3 (73.5)	61.0 (79.4)	29.8 (79.6)	45.6 (100.0)	47.9 (66.0)	55.2 (76.9)	7.3 (10.9)
	대전/충남/충북	52.9 (69.5)	110.2 (106.9)	50.7 (102.6)	46.0 (88.6)	49.5 (63.4)	48.8 (66.6)	55.1 (92.6)	54.3 (81.4)	52.4 (84.4)	-1.9 (3.0)
	광주/전남/전북	65.0 (78.9)	54.9 (115.1)	35.1 (112.3)	74.0 (113.6)	66.1 (103.4)	87.2 (95.1)	67.8 (98.3)	83.1 (120.8)	52.8 (92.5)	-30.3 (-28.3)
	대구/경북	60.3 (63.2)	55.6 (119.8)	83.2 (128.1)	71.6 (103.8)	74.9 (122.0)	74.2 (63.4)	92.5 (124.0)	61.2 (72.8)	55.0 (88.3)	-6.2 (15.5)
	부산/울산/경남	82.0 (104.3)	88.0 (111.4)	63.7 (99.4)	90.8 (111.1)	77.7 (90.3)	83.7 (94.8)	67.7 (109.8)	73.3 (103.4)	61.5 (64.2)	-11.8 (-39.2)
	강원/제주	108.9 (118.0)	52.0 (88.1)	89.7 (88.4)	109.0 (141.4)	119.8 (112.6)	95.2 (66.7)	65.3 (133.7)	95.6 (160.0)	87.4 (90.7)	-8.2 (-69.3)
부과별	매출	75.0 (87.9)	77.0 (102.7)	68.1 (107.0)	76.1 (99.4)	76.3 (99.4)	76.6 (84.1)	69.2 (87.5)	64.1 (83.1)	67.1 (81.4)	3.0 (-1.7)
	채산성	65.0 (82.5)	69.2 (95.5)	60.0 (96.6)	68.4 (86.9)	60.4 (91.7)	61.8 (71.9)	60.3 (72.6)	56.1 (75.1)	61.1 (78.9)	5.0 (3.8)
	인력사정	85.7 (95.3)	88.4 (105.4)	87.8 (101.0)	94.3 (99.9)	88.0 (98.3)	90.7 (98.8)	88.4 (94.8)	86.2 (97.8)	81.6 (92.6)	-4.6 (-5.2)
	자금사정	92.1 (97.2)	84.9 (102.4)	85.8 (100.8)	93.8 (104.9)	86.7 (94.5)	87.4 (96.6)	85.5 (94.7)	58.7 (72.4)	59.5 (75.3)	0.8 (2.9)

()내는 전망치

■ 매출

분기	10. 3/4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75.0 (87.9)	77.0 (102.7)	68.1 (107.0)	76.1 (99.4)	76.3 (99.4)	76.6 (84.1)	69.2 (87.5)	64.1 (83.1)	67.1 (81.4)	3.0 (-1.7)	
업종별	제품	82.3 (96.6)	87.2 (103.9)	72.5 (112.7)	88.9 (107.7)	72.0 (110.8)	80.0 (95.1)	82.4 -	65.6 (99.4)	80.6 (83.9)	15.0 (-15.5)
	시각	76.4 (91.3)	86.2 (105.7)	64.3 (102.2)	69.8 (97.1)	70.4 (91.9)	79.5 (77.9)	63.1 -	61.1 (79.0)	59.5 (83.2)	-1.6 (4.2)
	인테리어	67.7 (75.7)	71.4 (102.3)	76.5 (108.6)	70.6 (98.0)	89.5 (104.3)	69.8 (81.8)	65.6 -	69.8 (87.9)	65.2 (78.4)	-4.6 (-9.5)
	기타	72.8 (87.0)	47.2 (93.6)	56.9 (108.8)	83.9 (95.2)	75.1 (93.5)	75.2 (85.9)	69.5 -	59.6 (59.6)	63.6 (78.0)	4.0 (18.4)
지역별	서울	75.1 (90.5)	76.6 (104.0)	70.7 (108.7)	77.4 (97.6)	77.2 (103.5)	77.2 (83.2)	67.6 -	64.1 (80.1)	68.6 (81.2)	4.5 (1.1)
	경기/인천	65.8 (80.0)	80.8 (88.0)	56.8 (93.5)	54.2 (82.4)	58.7 (86.9)	55.1 (88.8)	54.7 -	55.6 (63.9)	63.5 (78.7)	7.9 (14.8)
	대전/충남/충북	66.0 (68.3)	102.9 (116.0)	59.1 (98.1)	56.2 (73.9)	51.3 (67.5)	61.1 (66.9)	64.7 -	60.5 (68.2)	56.8 (85.8)	-3.7 (17.6)
	광주/전남/전북	74.4 (74.7)	59.8 (99.0)	45.6 (107.6)	82.3 (117.0)	90.4 (108.2)	97.1 (99.5)	75.3 -	79.2 (120.8)	63.8 (89.2)	-15.4 (-31.6)
	대구/경북	82.8 (81.3)	60.9 (101.1)	82.9 (124.0)	74.2 (103.1)	77.5 (97.9)	72.7 (65.6)	96.5 -	58.7 (80.1)	71.9 (92.5)	13.2 (12.4)
	부산/울산/경남	85.0 (98.9)	88.2 (122.8)	71.3 (105.0)	98.2 (126.0)	87.5 (94.5)	94.4 (100.6)	78.2 -	76.1 (117.0)	58.6 (68.2)	-17.5 (-48.8)
	강원/제주	88.8 (108.4)	72.5 (96.2)	83.1 (96.9)	119.7 (162.7)	106.4 (93.6)	95.2 (61.4)	79.6 -	66.7 (160.0)	84.8 (95.3)	18.1 (-64.7)

()내는 전망치
2012년 1/4분기까지는 마케팅 경기로 조사됨

■ 재산성

분기	10. 3/4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65.0 (82.5)	69.2 (95.5)	60.0 (96.6)	68.4 (86.9)	60.4 (91.7)	61.8 (71.9)	60.3 (72.6)	56.1 (75.1)	61.1 (78.9)	5.0 (3.8)	
업종별	제품	68.0 (90.4)	74.2 (103.1)	65.7 (96.8)	80.8 (97.1)	62.2 (104.1)	63.0 (82.9)	66.5 -	60.1 (89.4)	70.4 (81.0)	10.3 (-8.4)
	시각	68.5 (87.7)	76.6 (101.3)	56.1 (91.2)	59.1 (80.4)	60.8 (85.7)	65.1 (64.4)	57.7 -	58.8 (70.8)	56.0 (80.5)	-2.8 (9.7)
	인테리어	58.0 (66.4)	63.4 (86.7)	67.2 (107.8)	70.4 (86.5)	61.4 (93.1)	55.0 (64.9)	58.1 -	54.0 (80.1)	61.0 (75.7)	7.0 (-4.4)
	기타	63.6 (85.0)	53.0 (84.5)	49.2 (91.2)	71.6 (89.8)	54.8 (86.6)	63.0 (84.4)	60.9 -	46.4 (55.6)	56.7 (76.4)	10.3 (20.8)
지역별	서울	66.7 (86.0)	70.0 (99.3)	61.5 (101.6)	69.5 (85.2)	58.8 (95.7)	63.7 (72.1)	59.3 -	59.1 (74.7)	63.2 (79.5)	4.1 (4.8)
	경기/인천	52.3 (71.5)	63.7 (81.7)	50.2 (81.2)	51.6 (80.0)	47.2 (68.8)	38.4 (74.9)	46.5 -	34.5 (54.5)	54.8 (75.9)	20.3 (21.4)
	대전/충남/충북	51.9 (70.6)	139.3 (109.3)	42.1 (70.7)	46.7 (60.6)	39.6 (65.0)	40.8 (48.8)	69.1 -	43.4 (66.7)	46.9 (69.8)	3.5 (3.1)
	광주/전남/전북	61.6 (71.4)	59.1 (90.8)	41.5 (87.2)	80.4 (94.3)	79.9 (102.4)	88.5 (87.5)	69.0 -	73.4 (90.9)	54.1 (97.2)	-19.3 (6.3)
	대구/경북	64.6 (67.6)	53.8 (95.5)	75.1 (117.0)	66.2 (94.6)	70.1 (113.2)	73.0 (50.1)	88.0 -	51.9 (73.8)	67.0 (92.5)	15.1 (18.7)
	부산/울산/경남	74.9 (88.9)	64.9 (98.4)	63.1 (78.8)	83.6 (103.0)	81.5 (75.1)	60.0 (86.1)	51.9 -	71.0 (98.3)	55.3 (64.6)	-15.7 (-33.7)
	강원/제주	63.2 (107.3)	78.9 (50.6)	106.9 (90.2)	100.1 (142.1)	58.2 (93.6)	67.2 (47.6)	56.1 -	42.2 (148.9)	78.8 (75.5)	36.6 (-73.4)

()내는 전망치
2012년 1/4분기까지는 재무 부분으로 조사됨

■ 인력사정

분기	10. 3/4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85.7 (95.3)	88.4 (105.4)	87.8 (101.0)	94.3 (99.9)	88.0 (98.3)	90.7 (98.8)	88.4 (94.8)	86.2 (97.8)	81.6 (92.6)	-4.6 (-5.2)	
업종별	제품	88.5 (98.2)	86.5 (104.3)	96.9 (105.1)	99.0 (103.7)	86.2 (101.0)	88.1 (107.8)	93.3 -	92.3 (102.9)	84.2 (93.0)	-8.1 (-9.9)
	시각	87.0 (95.5)	87.5 (109.6)	89.0 (100.8)	90.3 (99.8)	92.0 (94.7)	88.3 (94.2)	86.0 -	83.1 (97.1)	76.1 (87.4)	-7.0 (-9.7)
	인테리어	79.5 (89.8)	92.2 (102.5)	81.2 (102.4)	91.6 (94.4)	88.5 (101.2)	90.6 (93.0)	88.1 -	80.8 (95.0)	77.6 (94.2)	-3.2 (-0.8)
	기타	89.3 (99.8)	87.1 (100.7)	82.6 (92.7)	102.5 (104.2)	79.5 (98.6)	100.4 (105.1)	86.6 -	93.0 (95.6)	94.2 (100.2)	1.2 (4.6)
지역별	서울	85.4 (96.0)	85.5 (106.4)	86.6 (102.0)	95.3 (97.8)	86.6 (100.0)	91.1 (97.1)	87.7 -	86.9 (98.5)	82.2 (94.0)	-4.7 (-4.5)
	경기/인천	83.1 (95.2)	89.1 (92.7)	90.4 (91.4)	83.4 (91.4)	73.7 (94.0)	77.1 (99.9)	83.9 -	76.5 (81.8)	84.2 (93.4)	7.7 (11.6)
	대전/충남/충북	80.9 (85.0)	115.8 (125.1)	68.8 (88.2)	93.8 (97.9)	78.5 (70.9)	99.5 (108.6)	87.5 -	77.5 (81.4)	72.8 (80.5)	-4.7 (-0.9)
	광주/전남/전북	86.2 (94.3)	100.8 (122.0)	87.9 (96.7)	91.9 (111.6)	110.9 (99.7)	85.7 (105.6)	83.3 -	81.8 (109.1)	77.4 (83.6)	-4.4 (-25.5)
	대구/경북	92.0 (100.7)	94.1 (100.5)	101.2 (105.0)	81.7 (92.1)	100.5 (105.8)	101.9 (95.9)	97.5 -	100.0 (102.4)	76.0 (96.6)	-24.0 (-5.8)
	부산/울산/경남	87.1 (89.3)	89.5 (114.4)	92.3 (114.6)	110.1 (129.5)	94.3 (97.4)	97.2 (107.8)	91.7 -	92.6 (114.2)	78.1 (88.2)	-14.5 (-26.0)
	강원/제주	102.8 (106.0)	100.0 (84.4)	91.7 (106.7)	120.7 (120.4)	100.0 (100.0)	99.2 (81.0)	105.1 -	86.7 (117.8)	99.8 (95.2)	13.1 (-22.6)

()내는 전망치
2012년 1/4분기까지는 인적자원관리로 조사됨

■ 자금사정

분기	10. 3/4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92.1 (97.2)	84.9 (102.4)	85.8 (100.8)	93.8 (104.9)	86.7 (94.5)	87.4 (96.6)	85.5 (94.7)	58.7 (72.4)	59.5 (75.3)	0.8 (2.9)	
업종별	제품	100.3 (103.8)	86.5 (102.0)	94.6 (106.7)	100.5 (114.0)	85.2 (98.7)	94.8 (109.7)	94.1 -	66.0 (82.1)	70.5 (78.4)	4.5 (-3.7)
	시각	94.5 (101.0)	87.0 (108.1)	88.5 (101.7)	91.4 (99.2)	84.1 (87.2)	85.6 (90.5)	81.3 -	56.4 (68.2)	48.9 (75.7)	-7.5 (7.5)
	인테리어	79.6 (85.4)	86.4 (99.1)	77.9 (101.1)	88.9 (105.7)	94.7 (104.5)	80.4 (86.9)	81.2 -	55.9 (73.8)	54.2 (71.5)	-1.7 (-2.3)
	기타	95.6 (98.0)	74.3 (93.4)	79.0 (88.8)	98.9 (105.4)	81.9 (90.0)	91.1 (106.9)	89.2 -	57.6 (65.3)	70.6 (74.6)	13.0 (9.3)
지역별	서울	90.7 (98.1)	84.2 (102.6)	84.4 (100.7)	93.6 (103.9)	88.8 (96.7)	85.7 (92.2)	86.3 -	60.3 (72.0)	62.3 (76.1)	2.0 (4.1)
	경기/인천	82.0 (87.5)	81.3 (95.8)	75.4 (93.4)	93.2 (94.5)	55.7 (87.0)	81.9 (105.2)	83.6 -	40.6 (63.4)	51.9 (68.9)	11.3 (5.5)
	대전/충남/충북	90.3 (90.7)	99.2 (116.0)	78.9 (95.5)	99.9 (113.1)	62.1 (69.7)	87.9 (96.3)	80.1 -	60.5 (64.3)	53.2 (75.5)	-7.3 (11.2)
	광주/전남/전북	92.2 (98.7)	99.7 (118.7)	80.9 (105.0)	89.8 (110.9)	95.5 (97.1)	92.7 (116.1)	82.8 -	69.5 (89.6)	59.1 (89.0)	-10.4 (-0.6)
	대구/경북	114.1 (111.6)	80.1 (99.7)	102.9 (116.8)	88.8 (105.3)	112.4 (97.8)	93.3 (96.4)	86.0 -	67.5 (70.4)	62.1 (78.0)	-5.4 (7.6)
	부산/울산/경남	94.9 (94.8)	91.3 (108.8)	104.6 (102.0)	99.7 (117.9)	93.0 (96.0)	102.9 (111.2)	82.7 -	61.9 (79.0)	47.6 (63.6)	-14.3 (-15.4)
강원/제주	107.2 (111.0)	78.1 (74.4)	108.5 (88.2)	100.0 (120.4)	100.0 (93.3)	79.6 (71.2)	92.9 -	51.1 (117.8)	64.7 (88.1)	13.6 (-29.7)	

()내는 전망치
2012년 1/4분기까지는 투자로 조사됨

부록 IV. 산업일반 통계자료

■ 제조업 BSI

	'1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매출 ¹⁾	93 (94)	94 (96)	95 (100)	96 (97)	94 (96)	88 (92)	87 (87)	81 (89)	(86)	-6 (-3)
수출	98 (95)	97 (99)	99 (100)	97 (101)	97 (98)	92 (96)	91 (93)	86 (92)	(87)	-5 (-5)
내수판매	91 (92)	92 (94)	93 (96)	92 (95)	91 (93)	83 (90)	85 (82)	78 (87)	(84)	-7 (-3)
생산 ¹⁾	93 (93)	95 (97)	98 (98)	97 (100)	95 (98)	90 (94)	86 (90)	85 (90)	(88)	-1 (-2)
신규수주 ¹⁾	90 (89)	91 (94)	93 (95)	92 (95)	91 (94)	81 (90)	82 (83)	79 (82)	(84)	-3 (+2)
제품재고수준 ²⁾	106 (105)	105 (104)	106 (103)	107 (104)	106 (105)	106 (107)	105 (104)	108 (104)	(105)	+3 (+1)
가동률 ³⁾	91 (93)	95 (95)	96 (98)	96 (99)	92 (96)	86 (92)	83 (87)	83 (87)	(86)	0 (-1)
생산설비수준 ²⁾	105 (103)	103 (104)	103 (103)	102 (102)	104 (102)	103 (104)	104 (104)	105 (103)	(104)	+1 (+1)
설비투자실행 ⁴⁾	98 (98)	97 (99)	98 (99)	99 (99)	97 (99)	93 (98)	93 (94)	92 (93)	(93)	-1 (0)
채산성 ⁵⁾	89 (88)	88 (90)	90 (90)	90 (90)	88 (90)	82 (88)	82 (83)	85 (83)	(86)	+3 (+3)
원자재구입가격 ³⁾	116 (114)	116 (117)	113 (115)	109 (113)	107 (109)	107 (107)	109 (108)	111 (109)	(110)	+2 (+1)
제품판매가격 ³⁾	99 (98)	99 (101)	96 (100)	95 (97)	92 (96)	86 (92)	87 (89)	90 (90)	(92)	+3 (+2)
자금사정 ⁵⁾	88 (87)	89 (90)	91 (90)	89 (92)	89 (88)	84 (88)	81 (85)	82 (83)	(84)	+1 (+1)
인력사정 ²⁾	95 (95)	93 (95)	93 (94)	94 (94)	94 (95)	92 (95)	94 (94)	93 (94)	(94)	- 1(0)

주 :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이하 동일)

2) 「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이하 동일)

3) 「상승」응답업체 구성비(%) - 「하락」응답업체 구성비(%) + 100(이하 동일)

4) 「계획대비 수정증액」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응답업체 구성비(%) + 100

5)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이하 동일)

(자료 : 한국은행)

■ 비제조업 BSI

	'1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업황	76 (78)	79 (79)	79 (81)	80 (83)	75 (81)	67 (76)	66 (69)	66 (69)	(67)	0 (-2)
계절조정	76 (80)	80 (78)	76 (82)	78 (79)	73 (80)	67 (76)	68 (70)	67 (69)	(67)	-1 (-2)
매출	85 (87)	90 (87)	90 (92)	90 (93)	89 (92)	80 (88)	81 (80)	81 (84)	(83)	0 (-1)
채산성	82 (86)	91 (87)	90 (91)	90 (92)	85 (90)	79 (86)	78 (81)	81 (80)	(83)	+3 (+3)
자금사정	84 (86)	90 (88)	89 (89)	88 (92)	88 (89)	81 (87)	78 (83)	79 (80)	(82)	+1 (+2)
인력사정	92 (89)	89 (92)	89 (90)	89 (90)	90 (90)	83 (90)	83 (84)	84 (84)	(86)	+1 (+2)

(자료 : 한국은행)

■ 거시지표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주가지수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평균)	어음부도율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 대비(%)	포인트(p)	전년동월대비(%)		기간중 평균(%)	전년동기 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7	5.1	49.4	1.4	2.5	3.2	6.6	11.2	10.2	5.7	0.02	0.01	1,897.1
2008	2.3	43.8	8.6	4.7	3.2	..	14.3	11.9	7.0	0.03	0.02	1,124.5
2009	0.3	49.1	-0.2	2.8	3.6	2.2	10.3	7.9	5.8	0.03	0.02	1,682.8
2010	6.3	52.2	3.8	3.0	3.7	9.1	8.7	8.2	4.7	0.03	0.03	2,051.0
2011	3.6	47.3	6.1	4.0	3.4	1.6	4.2	5.3	4.4	0.02	0.02	1,825.7
2011. 9	3.6		5.7	3.8	3.0	1.6	4.2	5.7	4.24	0.01	0.01	1,769.7
10			5.6	3.6	2.9		4.4	6.1	4.29	0.01	0.01	1,909.0
11		45.4	5.1	4.2	2.9		4.4	6.2	4.24	0.02	0.01	1,847.5
12	3.3		4.3	4.2	3.5	1.7	4.4	6.2	4.24	0.02	0.01	1,825.7
2012. 1			3.4	3.4	3.5		4.8	6.5	4.24	0.02	0.01	1,955.8
2		44.2	3.5	3.1	4.2		5.3	7.2	4.25	0.01	0.01	2,030.3
3	2.8		2.8	2.6	3.7	10.5	5.7	8.7	4.36	0.01	0.01	2,014.4
4			2.4	2.5	3.5		5.5	8.6	4.25	0.02	0.02	1,981.9
5		46.6	1.9	2.5	3.1		5.5	8.4	4.01	0.01	0.01	1,843.8
6	2.3		0.8	2.2	3.2	6.1	5.9	8.5	3.87	0.02	0.01	1,854.0
7			-0.1	1.5	3.1		6.0	8.4	3.60	0.02	0.02	1,882.0
8		43.6	0.3	1.2	3.0		5.7	7.8	3.40	0.02	0.02	1,905.1
9	1.6		1.0	2.0	2.9	3.31	1,996.2

주 : 회사채수익률은 AA -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임금(제조업, 실질)은 2008년 이후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KSIC-9차개정)에 따라 2008~2010년 자료를 소급 적용

(자료 : SERI 경제포커스 제398호)

■ 산업활동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 수주	국내건설 수주	평균 가동률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7	112.8	101.5	5.2	0.7	8.7	20.6	23.6	80.3	7.1	19.8	6.1	8.8
2008	114.1	101.2	1.1	1.2	2.5	-14.1	-7.6	77.6	3.4	15.7	-3.1	22.1
2009	123.4	97.6	2.7	4.3	-2.2	-10.4	5.0	74.4	-0.2	7.5	-9.2	13.0
2010	132.4	100.5	6.7	8.8	4.5	8.3	-17.7	80.9	16.8	38.1	19.8	-7.7
2011	138.81	100.5	4.3	8.1	3.9	11.0	4.0	80.0	7.0	35.2	11.0	8.5
2011. 8	136.6	100.9	5.6	8.4	3.5	6.8	72.8	79.8	4.9	18.7	21.8	9.3
9	136.6	100.4	2.9	6.3	0.3	6.1	-3.9	79.0	7.4	30.0	12.0	8.2
10	136.8	100.3	2.4	4.8	7.6	18.0	61.4	78.8	6.7	57.9	8.3	-3.0
11	137.1	99.8	1.2	-0.6	1.1	33.9	14.1	78.4	6.3	53.1	10.6	-0.8
12	137.7	99.8	2.0	8.1	3.9	-9.6	15.0	76.9	2.9	32.0	6.2	-6.6
2012. 1	138.7	99.6	0.8	-3.7	-0.7	0.1	42.8	80.5	-1.9	20.7	-14.3	-16.4
2	140.1	100.0	5.4	5.0	-0.3	21.8	100.4	81.0	15.2	21.8	33.7	15.0
3	140.6	99.6	0.1	2.5	3.4	-25.1	-3.5	78.1	0.7	13.9	4.3	-4.9
4	141.2	99.4	0.3	-0.2	-1.3	-6.9	-4.4	79.2	0.1	8.8	-0.4	-8.1
5	141.3	98.9	2.2	2.3	-2.6	-10.9	2.9	79.3	2.9	11.9	8.4	3.0
6	142.8	98.9	0.6	1.0	-4.5	-33.8	2.6	78.1	1.6	16.2	-0.6	-9.3
7	143.7	99.1	2.7	4.5	-3.5	-6.8	23.8	77.0	0.1	4.3	-8.4	-6.8
8	144.0	98.6	-0.3	-1.8	-0.9	-16.1	-29.9	73.8	0.3	21.7	-26.6	-5.5

주 : 2008년 1월부터 현행 2000년 기준지수를 2005년 기준으로 변경
(자료 : SERI 경제 포커스 제398호)

■ 국제수지 및 외환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달러(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7	21,770	37,129	-11,967	135	-2,388	-17,935	-26,058	262,224	938.2	833.33	3,334.3	836.5
2008	3,198	5,170	-5,734	4,435	109	-16,941	-2,406	201,223	1,257.5	1,393.89	3,173.7	245.5
2009	32,791	37,866	-6,641	2,277	290	-14,948	49,728	269,995	1,167.6	1,262.82	3,456.8	690.0
2010	29,394	40,083	-8,626	1,016	-218	-22,184	42,480	291,571	1,138.9	1,397.08	3,594.3	916.1
2011	27,655	32,100	-4,377	2,456	150	-15,694	10,312	306,402	1,153.3	1,485.16	3,983.9	979.9
2011. 8	292.6	371.5	-577.9	699.6	41.5	-1,036.4	-2,923.0	312,195	1,071.7	1,396.81		
9	2,829.8	2,098.2	70.6	543.0	180.2	-2,098.3	1,773.1	303,384	1,179.5	1,536.61	3,956.2	981.7
10	4,132.9	3,547.2	2.8	643.5	109.7	-1,132.2	3,919.1	310,976	1,104.5	1,457.99		
11	4,564.6	3,997.2	357.2	445.6	98.1	-2,077.1	39.8	308,631	1,150.3	1,475.69		
12	2,809.3	2,704.5	-205.2	488.7	0.0	-842.7	-2,411.4	306,403	1,150.3	1,485.16	3,983.9	979.9
2012. 1	-968.8	-1,624.0	-128.8	1,191.7	-1.7	-2,013.3	7,737.0	311,341	1,125.0	1,473.09		
2	557.3	1,310.1	-1,219.3	613.4	36.0	-3,572.6	6,115.2	315,804	1,126.5	1,399.21		
3	2,971.4	2,926.3	699.7	-317.5	100.0	-1,617.4	1,303.9	315,952	1,137.8	1,380.74	4,125.5	965.3
4	1,734.0	1,750.8	549.7	-422.0	102.3	-940.4	-2,213.3	316,837	1,134.2	1,412.01		
5	3,574.9	1,715.9	1,593.0	341.6	144.2	-1,382.0	-937.1	310,872	1,177.8	1,489.10		
6	5,879.9	5,053.8	170.0	901.8	37.8	-692.8	-2,330.9	312,378	1,153.8	1,453.79	4,186.1	880.9
7	6,144.3	5,340.6	593.3	401.9	36.3	-1,443.6	2,529.2	314,348	1,136.2	1,453.59		
8	2,357.3	2,371.9	-262.2	435.5	8.0	-1,607.1	580.9	316,885	1,134.6	1,443.97		

(자료 : SERI 경제 포커스 제398호)